OPEN 출처표시 상업적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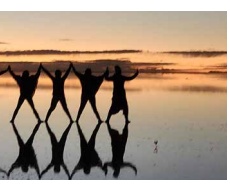
KOICA

2024 VOL.6

커버스토리 지속 가능한 미래, 미래 세대에서 시작된다! **인터뷰** 키르시 마디 유엔여성기구 부총재 **행사 리뷰** 제17회 서울ODA국제회의




FUTURE GENE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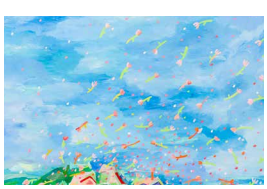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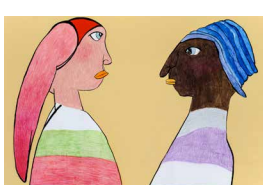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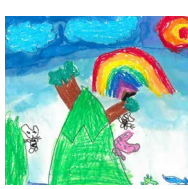









Dream



ODA



ODA 트렌드

04 개발협력 분야 글로벌 동향
지금 세계에선 무슨 일이?

커버스토리

06 지속 가능한 미래, 미래 세대에서 시작된다!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특별 기고

행사 리뷰

08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지혜로운 길을 찾다
제17회 서울ODA국제회의

기획 특집

12 "코이카와의 파트너십이 성평등 증진에 중요한 역할"
키르시 마디 유엔여성기구 부총재 인터뷰

14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와 함께한 5개월의 여정
우리는 코이카 입니다(We are KOICA)

16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ODA, 새삼 놀라워"
필리핀에서 직접 확인한 코이카의 저력



08



16

20 "모두가 평화 위한 노력 이어가면 좋겠어요"
글과 그림으로 평화·환경·사랑을 노래하는 전이수 작가 인터뷰

23 우리 같이 사다리 탈래?
코이카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

24 정부·지역사회, 아이들 교육 위해 팔 걷어붙이다
온두라스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 교육 환경 개선 사업

26 미래 세대와 함께 나아갑니다
해외봉사단원 사진 공모전 당선작

28 '리턴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코이카
협력국과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

31 "청년 시절 해외 봉사, 경쟁력 있는 미래 세대로 성장할 기회"
50년 전 한국 도운 미국 봉사단원들과의 만남



31

35 봉사 뜻 품고 밟은 그곳, 인생 황금기 연 기회의 땅으로
아시안 식당 차린 튀니지 최초의 한국인 셰프 나현정 대표 인터뷰

38 위탁가정·폭력회복지원센터 운영해 폭력 근절
코모로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사업

40 미래 세대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미래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 그림 공모전 당선작

42 "국제기구가 꿈? 그들이 탐낼 만한 인재로 성장해야"
코이카 경력사다리 타고 꿈 이룬 양다영 교육 컨설턴트 인터뷰

45 에티오피아 청년 실업 문제 '기술 인재 육성'으로 해결하다
에티오피아 직업기술대학 운영 사업

48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공간… '팹랩'이 만드는 창업 생태계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ITD지털 교육 지속 및 취업·창업 지원 산학협력 확대 사업

50 한국과 캄보디아 청년이 함께 창업한다면?
캄보디아 산학연계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사업



38



50



57

사업 리뷰

52 '우리가 살린다' 마을 농가 일으킨 콜롬비아 우먼파워
콜롬비아 농촌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소득 개선 사업

Forum

54 건강한 평가 문화, ODA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한다
제8회 KOICA 개발협력 평가포럼

에세이

57 위기에도 굳건한 나이지리아 사람들
박혜송 코이카 사업전략기획실 대리

기관소식

59 KOICA NEWS 모아보기

맺는말

65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함께 그리는 지속 가능한 내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지금 세계에선 무슨 일이?

개발협력 분야 글로벌 동향

소말리아·이라크 기후변화 대응 위해 1억 3,400만 달러 지원

녹색기후기금(GCF)이 소말리아와 이라크 농촌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기금을 승인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금 총액은 1억 3,400만 달러(약 1,873억 3,200만 원)에 달한다. 운영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담당하며 농가들이 가뭄, 홍수, 물 부족 등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정치 상황이 불안한 이라크에서는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라크 취약 지역 농가 대상 기후 대응력 강화(SRVALI)'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분쟁과 극심한 빈곤에 가뭄과 홍수까지 덮친 소말리아에서는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유그밧(Ugbaad)'이 진행된다. 유그밧은 소말리아어로 '희망'을 뜻한다.

2024 세계식량포럼 성료 "식량 문제 해결 위해 협력해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10월 개최한 제4회 2024 세계식량포럼(World Food Forum·WFF)이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이 포럼에는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투자, 혁신, 청년 참여, 정책, 기업 활동, 지역사회 등을 주제로 200여 개의 부대행사가 열렸다. 특히 이 행사에서 기후변화와 불평등이 가장 큰 주제로 떠올랐다. 추둥위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폐회식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성별, 세대, 직업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협력의 중요성과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이 협력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 제1회 유엔 세계 청소의 날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식량 문제 심각해질 나이지리아' 유엔세계식량계획, 긴급 지원 촉구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나이지리아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은 "현재 나이지리아 내 식량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2,500만 명으로 추산된다"면서 "나이지리아는 역사상 최악의 식량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은 문제의 원인을 15년에 걸친 분쟁과 극심한 홍수로 꼽았다. 특히 오는 2025년 하반기엔 보르노, 아다마와, 요베 등 북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수준의 식량 문제가 일어날 것이며, 지역 내 100만 8,000여 명의 아동과 80만여 명의 임산부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는 물론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이 나이지리아의 영양, 보건, 식량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쓰레기엔 국경이 없다" 제1회 유엔 세계 청소의 날

지난 9월 20일 제1회 유엔 세계 청소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세계 청소의 날은 2023년 12월 8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의제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청소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시행됐다.



유엔식량계획이 2025년 하반기에 나이지리아에서 기록적인 식량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니세프가 지난 10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의 피해자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



유엔난민기구가 지난 10월 무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맹을 결성하기로 했다.

행사 운영은 유엔해비타트(UN-HABITAT)가 맡았으며, 행사를 맞아 전 세계 각국에서 폐기물이나 청소 관련 행사가 열렸다. 벨기에에서는 유럽연합, 유엔과 함께 '브뤼셀 청소 축제'가 개최돼 청소 활동 및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노르웨이에서도 혁신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을 소개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세계 청소의 날 행사는 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와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무국적자 문제 해결할 연대체 결성한 유엔난민기구

무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체가 세계 최초로 탄생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10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무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맹'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유엔난민기구가 이끌어온 'IBelong 캠페인'을 기반으로 결성된 이 연대체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 50여 개 이상의 단체, 학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글로벌 연맹은 유엔 기구, 정부, 국제 시민사회 및 무국적자 관련 단체 등 15개의 자문위원회가 이끌고 유엔난민기구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누구도 무국적으로 남겨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를 걷기·자전거 지역으로" 내년부터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시행

범아프리카 모빌리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기구의 첫 액션 플랜이 나왔다. 이집트에서 열린 세계도시포럼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해비타트(UN-HABITAT), 세계보건기구(WHO)는 '아프리카 액티브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PAAPAM)'을 발표했다. 액티브 모빌리티란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인간의 신체활동을 통한 이동을 말하며 이는 환경문제 해결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액션플랜은 1,300여 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협력해 만들었으며 보행과 자전거 타기 등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 시설 조성을 목표로 정책 입안, 투자 및 인프라 확충 등이 진행된다. 액션플랜은 가나, 말라위, 케냐 등 최소 10여 개국에서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범아프리카 모빌리티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플랜이 2025년부터 아프리카 10개국 이상에서 시행된다.

태풍 트라미·콩레이 피해 복구 위해 필리핀에 긴급 지원 나서

지난 10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트라미', '콩레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가운데 유니세프(UNICEF)가 피해자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 이번 태풍으로 필리핀 전역 29개 지역의 420만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30만여 명이 어린이로, 대다수가 기본적 위생 및 식수를 보장받지 못해 고통받았다. 유니세프는 지난 10월 31일부터 태풍 피해를 입은 비콜 지역의 피해 가정 2,950곳에 위생 및 식수 키트를 지원했다. 또 태풍으로 인해 중단된 교육 재개를 위한 피해 지역 내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 복구에도 앞장섰다.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특별 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 미래 세대에서 시작된다!



코이카와 월드비전이 태풍 하이옌 피해 이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운 필리핀 불로드 보건센터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 총회가 개최되고,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Declaration of Future Generations)'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본 협약과 선언을 통해 유엔이 미래 세대의 의견과 권리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국가가 미래 세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약속을 천명한 것이다. 유엔의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은 전 세계 미래 세대가 겪어 온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글로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세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대한 전환과 진배없다.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가 미래 세대에서 비롯된다는 미래지향적 기대는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정 및 다양한 다자협력 플랫폼에 미래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복합위기와 미래 세대의 취약성

미래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위기 상황에 쉽게 노출되고 그 취약성도 기성세대보다 위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의 보건 위기, 지구온난화의 기후 위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전쟁 위기 등 복합 위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기성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다. 복합위기와 연동해 발생하는 빈곤·불평등·부패 등 국내의 장애요인은 사회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결국 미래 세대가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만 늘어난다. 따라서 복합위기 시대에 발생할 고통과 대응, 그리고 글로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배태된 기회와 위협에 반드시 미래 세대의 주체적인 참여와 행동이 보장돼야 한다. 미래에 발생할 취약성을 미래 세대에 감추지 말고, 기성세대와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동반자로서 미래 세대를 글로벌 사회에 초대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 미래 사회 변혁의 주체

2023년 아일랜드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가 발표한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에 따르면, 현재 식량 시스템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스스로 현재와 미래의 식량 시스템을 변혁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래 세대가 글로벌 사회의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공론화하는 등 미래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식량 주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위하여 미래 세대가 현재 운영되는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일종의 범분야(cross-cutting) 의제로 미래의 변화를 위한 미래 세대의 참여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권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현재의 지원

현재 미래 세대들이 겪는 부실한 거버넌스 시스템은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공재의 지속 가능한 제공 이행에 실패하였기에 더욱 잘못된 시스템을 학습해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거버넌스 개혁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유로 미래 세대가 현재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획부터 이행 및 평가까지 거버넌스 사이클을 점검하는 정책 과정에 핵심 리더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지역 환경에 맞게 미래 세대의 역량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 세대에 교육과 기술을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 프로그램과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취약국가에서 미래 세대는 기초적인 교육권 보장 이전에 가장 필수적인 식량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미래 거버넌스의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노력은 취약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한 전 세계의 인도주의적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

그렇다면 각 국가의 정부가 아동과 청년의 미래 세대를 내일의 리더로 인정하고 미래 세대가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무엇인가? 유엔의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이 명확하게 강조하였듯이, 미래의 리더인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미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그들의 관점, 우려, 아이디어를 경청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많은 국가에서 이미 미래 세대가 현시대와 미래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사회정의와 굿거버넌스를 요구하며,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목도해 왔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시작 단계부터 미래 세대를 포함해 함께 논의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어야 한다.



코이카가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에 대안교육센터를 건립해 학교 밖 소녀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글로벌 발전,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매년 'G20 정상회의'와 함께 미래 세대 청년들(youth)이 조직하는 'Y20 정상회의'가 병렬적으로 개최된다. Y20 정상회의는 각 회원국 국적의 미래 세대가 참여하여 최종적인 결과물로 'Y20 커뮤니케(communique)'를 발표하면서 마무리된다. Y20 커뮤니케는 미래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G20 정상회의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미래 세대인 Y20은 기성세대인 G20에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문해력을 포함한 양질의 교육 투자를 요청하고, 과학과 전략적 예측을 활용하며, 장기적 사고로의 전환과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경제 불안정 문제 등 초국경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세계를 보장하라는 전방위적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세대의 제언은 유엔을 포함한 글로벌 수준의 다자협력이 중장기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과 행동을 통합하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미래 세대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이윤영 코이카 이사, 삿빈더 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 사무차장, 리테쉬 타카르 컨버전스 상임고문 등 주요 인사들이 제17회 서울ODA국제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17회 서울ODA국제회의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지혜로운 길을 찾다

지난 9월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제17회 서울ODA국제회의’가 열렸다. 코이카와 외교부가 공동 개최한 국제회의에는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을 비롯해 각국 개발 전담기관, 주요 국제기구, 학계, 주한 외교단 등 관계자 3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급변하고 다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 나아가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시각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참여했던 개발협력 우수 사례도 공유했다. 이번 회의의 주제에서 연상하듯 회의장에는 앞으로 전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양한 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청중과 연사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원삼 이사장은 개회사 서두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언급하며 “현세대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방식을 찾고,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개발 격차를 줄임으로써 연대의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현재 직면한 국제사회의 위기는 미래 세대의 도전과제이기도 하다”라며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 세대의 참여는 물론 전 지구적 협력과 포용적 접근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또한 “미래 세대는 현세대가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를 누리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창의와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비전을 발전시키고 이행해 나갈 주인공”이라며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개발협력을 이해하고 같이 고민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강조했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개발도상국의 현 상황,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들을 언급하며 ODA(공적개발원조)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개발원조 제공자 간 긴밀한 공조, 개발도상국 ODA의 재정 투명성, 민간 투자를 막는 장애물 완화, 수익 증대와 투자 유치 간 균형,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을 위한 혁신적 모델 개발과 민간 투자 확대 등 개발협력 파트너 간 적극적인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조

제17회 서울ODA국제회의 본 세션은 전체 3개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 열린 첫 번째 세션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정책’이 주제였다.

첫 발표자로 나선 키르시 마디 유엔 사무차장보는 “성평등은 도덕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과제”라며 “성평등 달성을 위해 여성과 소녀의 참여가 꼭 필요하고 이것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파트너 국가들만이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고, 여성과 소녀의 4분의 1 정도가 아직도 식량 안보에 있어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1억 1,000만 명의 소녀들이 아직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수년간 국제사회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시적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당부했다.



제17회 서울ODA국제회의 회의장 전경

삿빈더 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무차장은 자신이 속한 아세안이 노력하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으로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순환경제와 청색경제, 탄소중립계획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가 아세안의 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송지선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도전과제 극복을 위해 한국의 개발협력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은 무엇이고, 한국이 미래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발협력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발표를 이어갔다.

송 조교수는 “이제는 말로 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좀 더 다양한 참여자들이 민간 부문의 개발협력에 함께하고, 민간과 공공 간 이견을 조율해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개발협력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개발협력 참여가 아직까지는 걸



환영사를 하는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개회사를 하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아름드리 합창단'의 축하공연(왼쪽)과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는 회의 참석자들

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라며 "좀 더 선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미래 세대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혁신을 통한 변화, 공고한 파트너십 기대

두 번째 세션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혁신적 모델'이 주제였다. 리테쉬 타카르 컨버전스(Convergence) 상임고문 및 아시아태평양 지부장이 첫 발표자로 나섰다. 컨버전스는 혼합 금융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ODA 제공기관들과 각종 금융기관, 민간, 자선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리테쉬 타카르 지부장은 그간 컨버전스가 축적한 혼합금융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리스크가 높아 투자를 꺼리는 민간 자본을 개발협력 분야에 유치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 부문과 자선기관이 함께 전체 거래를 주도해 가는 것이 혼합금융"이라고 설명하면서 민간 부문이 투자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펀딩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더 많은 ODA 펀딩이 민간 부문 동원을 통해 이뤄진다면 훨씬 더 많은 혼합금융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모하메드 압델 카데르 미국국제개발처(USAID) 수석혁신책임자는 "글로벌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전 세계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를 증진하는 것이 USAID의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라며 현재 진행 중인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그는 USAID 내 1만 명의 직원들이 100개국가에서 82개의 미션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여러 혁신 과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USAID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고,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파트너 기관들과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런 카자마 녹색기후기금(GCF) 전략적 관계 담당 책임자는 기후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2021~2022년 세계 기후재정으로 1조 3,000억 달러가 동원되었다고 소개하면서 기후재정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투자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혼합금융을 활용한 리스크 완화, 금융 부문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산림 보호,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환경에 친화적인 녹색금융을 활용해 더욱 혁신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덧붙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이 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연사로 나선 송지선 국립외교원 조교수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미래 세대를 바라보다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희망과 도전'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세대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첫 발표자는 케네스 마후니 모리셔스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슈와 미래 세대의 특징에 대해 발표를 시작한 그는 "아프리카는 평균 15~35세의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인구를 가진 젊은 대륙"이라며 "협력국의 미래 세대들은 IT, AI 등 신기술 사용에 능하고, 창의력과 역동성이 뛰어나다"라고 설명했다. 자신 또한 ODA의 수혜자 중 한 명으로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코이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케네스 마후니는 "모든 개발 내러티브에는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OECD 회원국인 공여국이 된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은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며 희망을 이야기했다.

르완다 교육부 ICT 활용 교육 담당관인 우이셰마 에메 베다스테는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하며,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르완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개발 파트너와 함께해 온 그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단순히 현재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굵직한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유엔개발계획(UNDP) DR콩고사무소 박준우 현장사무소장은 "인공지능, 디지털 변화, 기후, 스마트 기술, 혼합금융까지 다양한 혁신적 방법을 도입했지만 SDGs 목표 중 15%만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라며 "2030 비전 달성을 위해 남아 있는 난제들이 미래 세대에는 더 어려운 문제로 남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전하며 "투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미래 세대에 메시지를 전했다. 덧붙여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조금씩 이뤄나가는 중간중간의 진전과 성취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이윤영 코이카 이사가 폐회식을 진행했다. 그는 폐회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개발협력 방향과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 그들의 시각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세대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수요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SDGs의 중요성과 SDGs와 미래 세대의 삶이 직결돼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개발 영역에 혁신적 재원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사업 사례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적인 개발협력의 방향성과 SDGs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코이카의 국별 협력 사업, 학위 연수 프로그램을 비롯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자들이 사업 참여 경험을 통해 미래 세대 리더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윤영 이사는 또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 되는 미래 세대가 단순히 개발협력 수혜자가 아닌 주요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정부나 코이카 모두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더 듣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제17회 서울ODA국제회의를 마무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혁신적 모델'이라는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하는 리테쉬 타카르 컨버전스 상임고문 및 아시아태평양 지부장



제17회 서울ODA국제회의를 경청하는 참석자들

키르시 마디 유엔여성기구 부총재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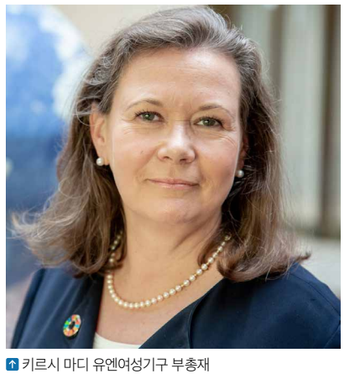
“코이카와의 파트너십이 성평등 증진에 중요한 역할”

키르시 마디(Kirsti Madi)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부총재로 자원관리, 지속가능성, 그리고 국제협력 분야를 총괄하며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마디 부총재는 성(Gender)평등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빈곤, 기후변화, 성폭력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성평등, 여성의 권리 증진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 기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후변화는 여성과 소녀들을 빈곤 위기에 처하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기술과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 속에서 키르시 마디 부총재는 “약속과 실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유엔여성기구와 한국 정부의 협력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을 마디 부총재에게 물어봤다.

Q 현재 전 세계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유엔여성기구가 최근 발간한 ‘2023년 성별 격차 보고서(Progress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gender snapshot 2024)’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평등 관련 지표는 어느 하나도 달성되지 못했으며, 목표에 근접한 지표도 단 두 개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여성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기까지 137년이 걸리고, 소녀들이 아동혼인 관행에서 벗어나려면 2092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약 1억 5,80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극심한 빈곤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식량 불안정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약 4,800만 명 더 많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진전은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약속과 실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절실합니다.



키르시 마디 유엔여성기구 부총재

Q 코이카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이카와의 파트너십은 성평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코이카는 케냐에서 유엔여성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해 여성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가정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필요한 자재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볼리비아에서는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약 3,500명의 여성이 기술 교육과 사업 관리 과정을 이수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주도하는 소규모 사업체가 더욱 활발하게 시장에 진출하고 수익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Q 젊은 여성과 소녀들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도와야 할 어른이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정이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살해된 8만 9,000여 명의 젊은 여성과 소녀 중 55%가 친밀한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신뢰하던 어른들에 의해 가해지는 학대와 억압은 장기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초래하고 교육 기회를 방해하며, 폭력과 차별의 악순환을 지속합니다. 또한 이런 환경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사회로 나아갈 기회를 제한합니다.

Q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정부와 지역사회, 개인이 함께 노력해 안전하고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밀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평등을 촉진하고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생존자를 지원함으로써 억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유엔여성기구는 경찰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응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Q 미래 세대,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유엔(UN)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고 있나요?

올해 열린 유엔 총회 79차 회의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과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새롭게 변화하고자 한 결과입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긴급한 기후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과학을 활용하고, 지식과 혁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성평등과 여성 및 소녀의 역량 강화는 선언문의 핵심 원칙으로, 협약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반영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협약은 젊은 세대의 관점을 글로벌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특사를 임명하며, 활발한 청년 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엔여성기구는 이러한 선언과 협약을 실현하기 위해 회원국, 시민사회, 그리고 청년들과 협력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이정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Q 한국 정부와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빈곤, 교육, 성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한국 정부는 성평등과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카는 여러 성과를 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더 강하게 만들고 긴급 상황이나 분쟁 지역에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13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청년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 기반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각 나라에 맞는 행동 계획을 세우는 국제 학습 행사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전쟁이나 재난으로 집을 잃은 여성과 소녀들을 돕기 위한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집을 제공하고, 직업 교육을 통해 자립을 돕는 한편,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약 9만 3,400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볼리비아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 장비를 지원하고, 기술 교육과 사업 관리 과정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3,500여 명이 이 과정을 마쳤으며, 참여했던 여성들은 수익이 늘고 사업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Q 아주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1세기에 약 100억 명의 신생아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 갈등, 식량 부족 같은 문제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청년들이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단순히 그들의 의견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유엔여성기구는 청년들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그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국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전 세계 8,100명 이상의 청년들과 함께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논의하는 제68차 여성지위위원회(CSW)를 위한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은 지역사회의 풀뿌리 활동부터 국제적인 캠페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오늘과 내일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데 방해되는 장벽을 없애고, 지역사회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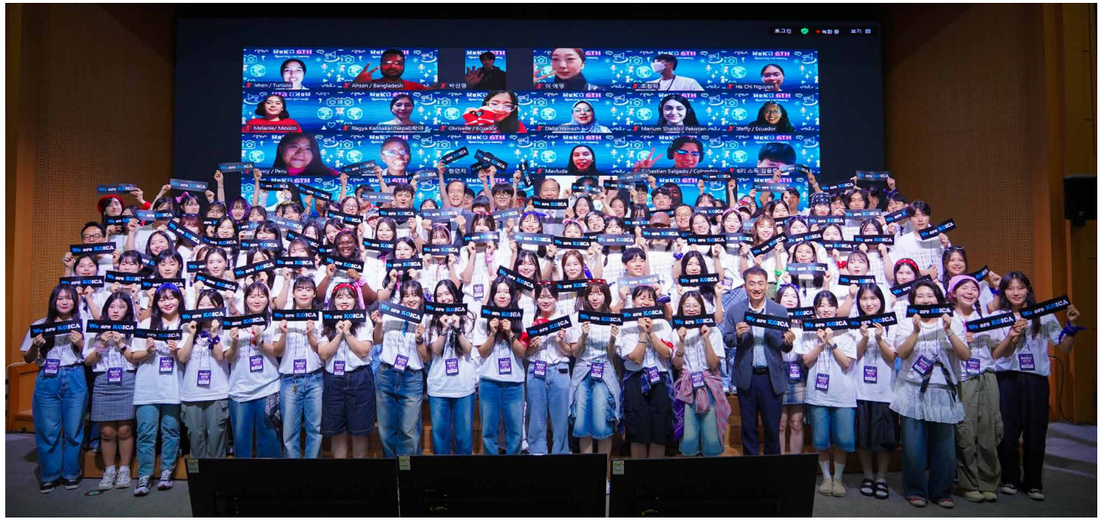
Q 한국 정부와 코이카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025년은 1995년 열린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에서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 한국 국민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베이징 선언 이후 30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성평등은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며 새로운 문제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이루는 것은 단지 정의로운 일을 넘어 모두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의 고용 격차를 줄이면 모든 지역에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약 20% 증가합니다. 이는 더 많은 기회와 경제 성장을 가져와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

유엔여성기구는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더욱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 선언 30주년을 맞아, 청소년과 청년들이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역, 국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유엔여성기구는 한국 정부와 코이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K



창의적 능력과 콘텐츠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위코(WeKO) 6기의 단체 세리머니

‘우리는 코이카 입니다(We are KOICA)’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와 함께한 5개월의 여정

‘익호’와 함께한 위코 6기 발대식

위코(WeKO) 6기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발대식이 지난 8월 9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개최됐다. 위코는 ‘우리 모두가 코이카(We are KOICA)’라는 뜻으로, 코이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및 ODA(공적개발원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홍보대사다. 위코 6기로 활동한 크리에이터 130명은 지난 8월 최종 경쟁률 7:1, 특히 글로벌 부문의 경우 전 세계 25개국에서 13: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으며 국내 부문(대학생 등 일반인) 99명, 글로벌 부문(국내외 거주 외국인) 31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위코 서포터스는 숏폼 등 트렌디한 플랫폼에서 창의적 역량을 갖춘 20~30세대가 중심을 이뤘다.

올해는 특히 SNS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기사 작성이 가능한 크리에이터를 비롯해 국제개발협력 분야 경험자 등을 위코 서포터스로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은 세기말 감성이 짙었던 199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타임슬립’ 콘셉트로 꾸려졌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필리핀, 모로코,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등 전 세계 27개국에서 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130명의 위코 서포터스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이날의 즐거운 만남을 자축했다. 특히 이날에는 코이카 사상 최초의 AI 가상 인물인 버추얼 서포터스 ‘익호’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4,844건의 콘텐츠 제작 ODA 알리기에 앞장서

위코 6기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젊은층이 선호하는 숏폼 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 4,844건을 제작해 빈곤, 불평등, 전쟁,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대중과 공유했다.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콘텐츠를 생산해 누적 노출수 4,759만 회, 반응수 3,105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위코 6기가 제작한 콘텐츠들이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특히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청년층에 친숙한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글로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23년 위코 5기가 제작한 글로벌 음원 ‘ODA Song’을 전 세계인들이 악기, 수어, 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한 ‘ODA 앙상블 합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그 과정을 담은 앙상블 뮤직비디오도 좋은 반응을 얻어 유튜브 조회수 225만 회를 기록했다. 이밖에 직접 AI를 활용해 코이카의 인공지능 챗봇 ODA GPT를 제작하는 등 참신하고 혁신적인 홍보 활동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년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17가지 목표

‘피코 평화의 숲’ 팝업 스토어 오픈

코이카 소통 캐릭터 ‘피코(PeKO)’를 내세워 지난 11월 8~1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피코 평화의 숲(PeKO GARDEN)’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코이카가 기관의 캐릭터를 활용해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연 최초의 사례로, 방문객이 피코와 함께 평화와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연스레 ODA의 가치도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피코 평화의 숲’은 마치 숲을 옮겨 놓은 듯한 도심 속 체험형 힐링 공간으로 꾸며졌다. ‘평화의 씨앗 찾기’ 체험존은 꽃과 풀로 가득한 정원 속에서 피코가 세계 평화를 위해 곳곳에 심어둔 씨앗을 참가자가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평화의 숲 가꾸기’ 게임존은 씨앗을 자라게 할 ‘땅 일구기’와 ‘광합성 시키기’ 등 가드닝 게임 체험을 통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화의 나무 꾸미기’ 메시지 존은 세계평화나 환경보호와 같은 거창한 바람부터 올해가 가기 전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소원까지 참가자 스스로 메시지를 적어 평화의 나무에 걸어보며 긍정 에너지를 나눌 수 있도록 운영됐다. 또 팝업스토어 운영 간에 플로깅(조깅을 하며 길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체육 활동과 자연보호 활동이 합쳐진 개념) 봉사단체 FPP와 협업한 정크시 챌린지를 통해 FPP가 추진 중인 기네스북 등재에도 뜻을 함께했다.

3일간 2,700여 명이 방문한 팝업 스토어 ‘피코 평화의 숲’은 코이카를 알리고 ODA의 가치를 전파하는 뜻깊은 활동 속에 무사히 행사를 종료했다.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 6기 성과공유회 ‘2030 Global ODA Awards’에서 참가자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피코(PeKO)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굿바이 위코 6기! 성과공유회

위코 6기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지난 5개월 활동 성과를 돌아보는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성과보고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종료 해인 2030년에 맞춘 ‘2030 Global ODA Awards’ 형식으로, 위코 6기가 이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설정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성과공유 영상 상영, 우수 서포터스 시상식, 엔딩 축하공연, 이사장 격려사 등의 시간으로 꾸려졌다.

시상식은 국내(개인·팀) 부문과 글로벌(개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국내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윤예인, 이영진 씨가 받았다. 글로벌 부문 최우수상은 마리 오드 레네 느곰(Marie Aude Renee Ngom, 세네갈) 씨가 선정됐다. 국내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이영진 씨는 “위코라는 공통점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세계시민의 느낌을 갖게 된 점이 좋았고, 국제학부생으로서도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마리 오드 레네 느곰 씨도 “저는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좋은 기회를 준 코이카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 덕분에 우리가 서로 많이 연결될 수 있었다”며 코이카에 고마움을 전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코이카 서포터스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 세계에 ODA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위코 6기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빈부격차, 기후변화, 분쟁 등 계속되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ODA 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10월 ‘고익하를 찾습니다’를 시작으로 전개된 ‘고익하(코이카)’ 대국민 브랜딩 캠페인의 전체 여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운영한 ‘피코 평화의 숲(PeKO GARDEN)’ 성수 팝업스토어 전경



‘피코 평화의 숲’ 성수 팝업스토어에서 방문객들이 평화의 숲을 가꾸는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직접 확인한 코이카의 저력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ODA, 새삼 놀라워”

“필리핀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지난 9월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코이카 필리핀사무소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위코 2기 한수련 씨가 감탄했다. 이날 행사는 1991년부터 이어진 코이카의 필리핀 대상 무상원조의 30년 역사를 기념하고 주요 파트너들과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이상화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 김동호 코이카 이사,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사무소장, 공여기관 대표, 국제기구 대표 등 180여 명이 자리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한 씨는 코이카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알리는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우수 활동자 자격으로 이곳에 초청됐다. 한 씨 외에 김도휘, 박혜령, 이주희, 임원빈, 신지원 씨 등 다섯 명의 위코 출신 청년들도 함께 초청받아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내의 코이카 사업 활동 지역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을 살펴봤다.



필리핀 타클로반 대안교육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위코 우수 활동자들

‘역대급 피해’ 필리핀에 보건과 교육 집중 지원

이들이 가장 먼저 방문한 지역은 2013년 8월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태풍 ‘하이옌’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타클로반 지역이다. 타클로반시는 필리핀 중부 비사야에 있는 레이테주의 중심 도시로, 태풍 하이옌 피해로 필리핀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던 곳이다.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가 긴급구호단을 파견하고 복구를 지원했으나 장기 재건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때 코이카가 주목한 사업 분야가 보건과 교육이다. 장기적인 지역 재건을 위해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높은 모성사망률과 아동사망률, 빈곤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코이카는 2021년부터 레이테·동부사말 등 비사야 지역 내 16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필리핀 동부 비사야 지역 모자보건 증진 사업’을 전개했다. 단순한 의료 지원뿐 아니라 주민 참여 활동 및 정책 옹호 활동, 교육까지 지원해 현재까지 3,539명에게 지역 보건 교육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4만 6,205가구에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보건 전문 인력 교육을 펼쳐 276명의 지역 내 보건 인력을 배출했고 앰뷸런스도 11대 제공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하이옌 이후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위기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불로드 지역의 보건시설에 들러 그간의 사업 성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코이카 필리핀사무소 개소 30주년 행사장 모습

대안교육 사업 통해 여성에게 배움과 자립 지원

교육 사업으로는 2017년부터 유네스코와 함께 ‘필리핀 유네스코 타클로반 지역 학교 밖 소녀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 대표적이다. 태풍 하이옌 피해 이후에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여성들의 자립을 목표로 ‘타클로반 대안교육센터’ 설립과 운영, 여성의 교육과 취업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코이카가 개발한 ALS(Alternative Learning System, 대안교육 시스템) 커리큘럼과 교재는 2018년 타클로반시에서 시범 적용된 후 2023년 필리핀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전국에서 400여 명의 학생과 8,000여 명의 교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대안교육센터를 졸업한 여성들은 20대부터 40대의 만학도로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불로드 지역 보건지소와 타클로반 대안교육센터, 코이카 필리핀사무소 개소 30주년 기념식 등을 돌아본 위코 출신 청년 참가자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주희 씨는 “타클로반 등 피해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면서 “단기적,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의 재건을 위해 진심으로 현장에서 뛰는 코이카의 모습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꾸준히 개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수련·이주희 위코 우수 활동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Interview 1



한수련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

Q 이번 해외 일정에 동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2020년 위코에 참여할 당시 활동 팀으로 대상을 받아 이번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사업이 현지에서 진행되는 방식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궁금했기에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Q 이번 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안교육센터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수혜 학



타클로반 대안교육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위코 우수 활동자들



불로드 지역 보건시설과 코이카가 지원한 앰뷸런스


타클로반 대안교육센터 수업 풍경

생 한 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대안교육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삼 형제의 어머니였는데,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어려워 남동생의 학업을 위해 자신은 공부를 포기하고 생계에 뛰어들어야 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처럼 해외 원조를 받던 수혜국이었을 때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이랬을 거란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찡했고, 여전히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문제를 코이카가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Q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현장을 국민 대표로 방문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1년 6개월 동안 라오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코이카 직원이나 봉사단원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어렵고 힘든 땅으로 봉사하러 온 사람들을 보며 '한 나라를 위해 많은 돈과 시간, 인력이 동원되어 한 사업이 이루어지는구나'를 깨달았고, 그를 계기로 코이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코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참여하여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특히 코이카가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여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는지, 현지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사업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리고 사업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직접 듣고 경험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민 대표로서 이러한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느꼈고, 앞으로도 꾸준히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관심을 갖겠다고 다짐했습니다.

Q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사업지 방문을 또 하고 싶은지요?

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의 사업지도 방문하고 싶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달라서 현지에서 필요한 사업의 종류와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제게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배우며 각 나라의 특수한 필요에 맞춰 어떻게 사업이 전개되는지 이해하고 싶고, 현장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개발협력 방법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Q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개발협력은 점점 더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이끌어갈 미래의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지 사회의 자립과 장기적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도 이에 대한 사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코이카의 뜻깊은 기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고, 수혜자 등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개발협력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저에게 이번 일정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코이카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2



이주희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리코리(RECORE) 대표

Q 이번 해외 일정에 동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위코 활동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코이카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민 대표로서 ODA 사업 현장을 직접 보고 그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했습니다.

Q 이번 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필리핀 타클로반의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태풍 피해를 딛고 새로 시작하는 지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기차게 뛰놀던 어린아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으로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코이카 지원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Q ODA 사업 현장을 국민 대표로 방문했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국제개발협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이 사업이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힘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ODA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건시설 관계자에게 보건의료 교육을 받는 불로드 지역 주민

Q 이번 해외 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코이카 필리핀사무소 김은섭 소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난 김 소장님은 코이카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열정과 헌신적인 모습에 저도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Q 청년, 그리고 국민 대표로서 코이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ODA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국민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글로벌 시각을 넓히고,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성장할 기회를 코이카가 더 많이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Q 본인이 생각했을 때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개발협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자립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Q 마지막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위코로 시작한 인연이 국민 대표로까지 이어져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리코리(RECORE) 브랜드가 친환경 실천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림과 글로 평화와 사랑,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이수 작가. 그는 화가, 작가, 환경운동가로 활동해 10대 청소년이지만 종합예술인이라는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다.

글과 그림으로 평화·환경·사랑을 노래하는 전이수 작가 인터뷰

“모두가 평화 위한 노력 이어가면 좋겠어요”

전이수 작가가 지난 11월 경기도 성남 코이카 본부에서 기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평화를 주제로 ‘평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현재 열여섯 살인 그는 10대 청소년이지만, 종합예술인이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2015년에 첫 동화책 출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6권의 책을 냈다.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제주 미혼모와 아프리카 친구들을 돕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또 환경운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환경운동가로도 불린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라 할 수 있는 그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Q 안녕하세요, 전이수 작가님.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누구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가이자 작가 전이수입니다. 제가 하는 활동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며 보고 느끼는 것들을 글로 쓰고 어떤 것들은 그림으로 그립니다. 어느새 그것들이 모여 책이 되고 그림 작품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결과물들을 제주 함덕해변에 있는 전시장 ‘걸어가는 늑대들’에 상설 전시합니다. 이 작품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데워주고 그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져 세상이 조금이나마 밝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Q 11월에 2024 KOICA ‘추(秋)카제’ 기획전으로 코이카와 함께 ‘평화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어떻게 이뤄지게 됐나요?

지난 10월 서울 혜화동에서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기부특별전을 열었어요. 작년에 아프리카 르완다를 다녀오며, 아이들에게 학교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기획한 전시였어요. 코이카에서 그 전시회를 눈여겨보시고, 다시 이렇게 전시를 추천해 주셔서 뜻깊은 전시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Q 작가님이 생각하는 ‘평화’란 어떤 건가요?

평화를 이야기하면 항상 그 반대에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라고도 하지만, 사람이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슬프게도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한쪽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평화’는 저의 꿈이에요.

Q 이번 전시회 작품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모두 제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전시 작품들은 희망, 사랑,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화 전시회’에 전시한 작품 중 전이수 작가가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고집>

Q 작가님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은 무엇이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고집’이라는 작품을 좋아해요.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같은 색깔의 세상에 살고 있는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눈은 그래도 타협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고. 함께 울면서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의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이라도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요.

Q 2008년생으로 여덟 살에 첫 동화책을 썼는데요. 어린 나이에 예술가의 길을 선택한 배경이 궁금해요.

저는 제 또래 아이들보다 한글을 늦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 글보다 그림으로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다 보니 어느새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걸 모아서 일곱 살 때 처음으로 전시를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선택된 길이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이 선택은 저랑 잘 맞고, 매우 즐거워요.



‘평화 전시회’에 전시한 작품들. 왼쪽부터 <엄마의 마음>, <사랑 프린팅>, <바람 부는 날>



그림 작업에 몰두하는 전이수 작가

Q 환경운동가로 환경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환경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현재 살고 있는 제주도와 관계가 있나요?

일곱 살에 제주도에 왔는데 그때 길가에 아름답게 서 있던 100년도 넘는 아주아주 크고 멋진 나무들을, 버스가 다니는 길을 만든다는 이유로 전기톱으로 베어내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나무들을 하루에도 몇백 그루씩 잘라대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너무도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와 동생과 친구들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메시지를 담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계기로 이렇게 환경에 관한 책도 꾸준히 만들고 있어요.

Q 아프리카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요? 시작한 계기도 궁금해요.

작년에 동생들과 함께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활고를 보고 들으며,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많은 걸 받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됐어요. 세상이 고르지 못해서 오는 불균형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서 아프리카에서 만난 친구들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열고, 제 그림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주려고 해요.

Q 작가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마이클 잭슨이에요.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기 때문에 받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결국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되고 난 후에도 세상을 더 밝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어요. 그가 만든 많은 노래들에도 이런 마음이 잘 담겨있어요. 저도 마이클 잭슨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도 환경에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Q 미래 세대로서 이 시대 또는 인류가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지나친 욕심과 경쟁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지나친 욕심이 다툼과 전쟁을 가져오고, 지나친 경쟁이 환경을 파괴하고 세상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다 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와 함께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도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을 무시한 지나친 경쟁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Q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가장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랑이에요. 가만 보면 아주 어린아이부터 다 큰 어른들까지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보여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갖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도 스스로를 아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 자신에게만 집중되거나 잘못된 방식이나 방향으로 발현될 때 문제가 생겨요.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란 바로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 서로를 아끼고 나 자신도 아끼고 세상 전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Q 앞으로의 계획과 최종 목표를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쓴 글과 그린 그림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위로가 되어 사람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세상을 조금 더 밝고 살아갈 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 꼭 글과 그림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공연 같은 다른 다양한 활동도 할 거예요.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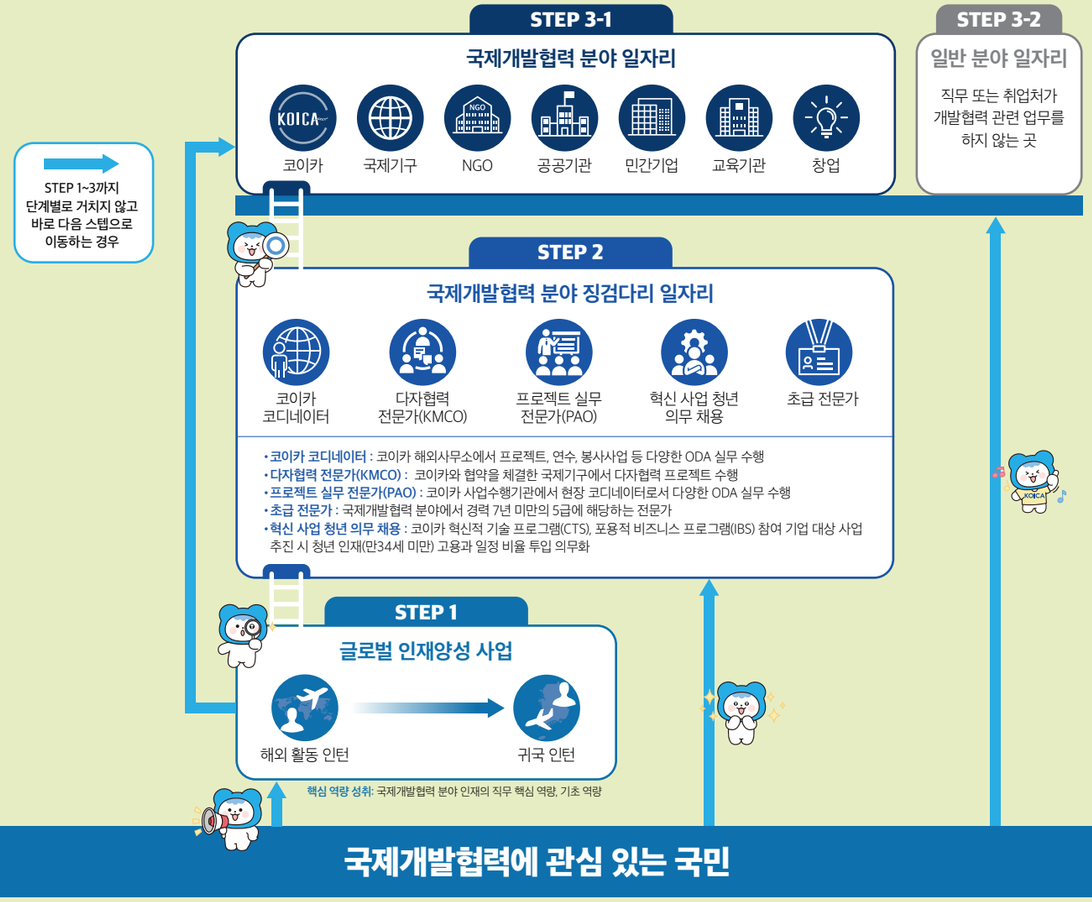


전이수 작가가 쓴 책. 왼쪽부터 <모든 걸 기억하진 못해도>, <수박>

코이카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우리 같이 사다리 탈래?

코이카는 청년들이 코이카 주관의 각종 활동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쌓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경력사다리다. 1단계(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 인턴) → 2단계(코이카 코디네이터, 다자협력 전문가, 프로젝트 실무 전문가) → 3단계(국내외 공공·민간 부문 진출) 등 세 단계로 구성된 경력사다리를 통해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전세계에서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





온두라스 렘피라주에 있는 대안교육센터를 찾은 코이카 조사단과 학생, 교직원, 유니세프 및 NGO 관계자들

온두라스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정부·지역사회, 아이들 교육 위해 팔 걷어붙이다

온두라스 인구 10명 중 1명이 글을 읽지 못한다. 온두라스 통계청(INE)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13%에 달한다. 인구 수로 따지면 91만 4,000명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1%p 상승한 수치다. 유네스코(UNESCO)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15세 이상 인구 문맹률이 중미에서 과테말라 다음으로 높다.

온두라스는 중남미에서도 학습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에 가는 대신 생계를 위해 일터에 뛰어들거나, 청소년 임신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면서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 밖에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범죄, 국외 이주 등으로 온두라스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자연재해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학업은 중단됐고, 강력한 태풍이 두 차례 덮치면서 다수의 학교가 피해를 입어 수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코이카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온두라스에서 500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함께 아우르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총예산 104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우선 17세 미만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교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에 혁신적 대안교육을 실시한다. 또 지역사회의 보건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수위생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지 맞춤형 교육으로 학업 지속성 높여

이번 프로젝트는 온두라스의 엘파라이소(El Paraíso), 프란시스코모라산(Francisco Morazan), 인티부카(Intibucá), 렘피라(Lempira) 등 4개 주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식수위생시설 설치와 대안교육 실시로 구분된다. 식수위생시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온두라스의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위생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임다정 코이카 과테말라사무소 코디네이터는 "학교 대부분이 학업 공간과 식수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매우 열악한 환경이고,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수준별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당연해지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에 교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온두라스의 실정에 맞춘 대안적인 교육 모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이카는 학교별 식수위생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화장실과 관로시설, 오수처리시설, 빗물이용시설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수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식수위생시설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별 환경에 맞춰 수요를 반영한 대안교육 방법론을 학교에 직접 도입한다. 대표적으로 생계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우는 '튜토리얼 학습 시스템(SAT)', 학교를 중퇴했다가 돌아온 학생들이 기본교육부터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브리지(Educational Bridge)', 등교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디지털 교육이 가능하도록 돕는 '학습 여권(Learning Passport)' 등이 있다.

혁신적 대안교육 기법은 마을 안에 학교가 없어 공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과, 미국으로 이주를 시도했다가 돌아온 아이들 등 학교 밖 아이들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중고등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실행될 7~12학년 과정의 중고등 대안교육 프로그램인 SAT 도입에 대해 현지 교육부도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배움터

학교의 물리적·시스템적 환경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서비스 및 보건 서비스 역량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학교-아동보호시설-보건시설 간의 연계를 통해 폭력 피해자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지 아동·청소년의 보건 관련 문제 중 하나는 청소년 임신이다. 온두라스의 청소년 임신율 평균은 22.9% 수준이다. 사업 대상 지역의 경우 프란시스코모라산주(12.6%)를 제외한 인티부카주(32.1%), 렘피라주(28.3%), 엘파라이소주(24.2%) 모두 국가 평균을 넘는다. 특히 청소년 임신은 여자 청소년의 학업 중도 탈락률을 높이고,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 출산, 빈곤율을 높이는 등 장기적으로 보건, 교육, 아동보호 분야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코이카는 이에 대해 청소년 엄마를 포함한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법을 교육하고, 아동발달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습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안교육센터 학생들이 코이카 조사단 등 방문객에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코이카 지원 사업을 통해 온두라스 프란시스코모라산주 초등학교에 조성한 식수위생시설

사업 파트너인 유니세프는 온두라스 대통령 직속 빈곤퇴치 프로그램, 사회보장부, 교육부, 아동청소년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교육 환경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다정 코디네이터는 "학교를 진정한 배움터이자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해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의 효과가 수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가려면 지역 공동체와 온두라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이카는 1차 지원 사업을 통해 프란시스코모라산주 초등학교의 식수위생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코이카 조사단이 방문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풍선과 피켓 등을 들고 조사단을 환영했다.

해외봉사단원 사진 공모전 당선작

미래 세대와 함께 나아갑니다

코이카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고민하고, 성별이나 지역의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지원 사업을 이어갑니다. 또한 일할 권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진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도가실 씨의 <캄보디아 프놈펜유치원에서의 '우행시'>


김온유 씨의 <모여봐요 동티의 숲>


함보람 씨의 <'그렇지!' 탄자니아 보육원 아이들과 제기차기를 하며>


양민철 씨의 <맞잡은 두 손>


최선하 씨의 <한국의 부채춤을 배우는 르완다 학생들>


정태정 씨의 <10남매의 다복한 대가족>

이진은 씨의 <장애-비장애 유아의 통합 수업 '둥글게 둥글게'>


최선 씨의 <반짝이는 배움의 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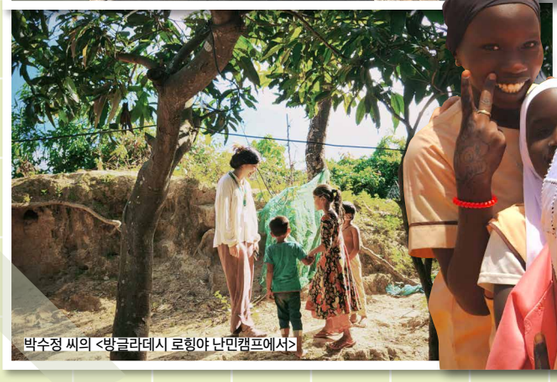

송윤승 씨의 <올타리를 넘어 하나가 되다>


장서연 씨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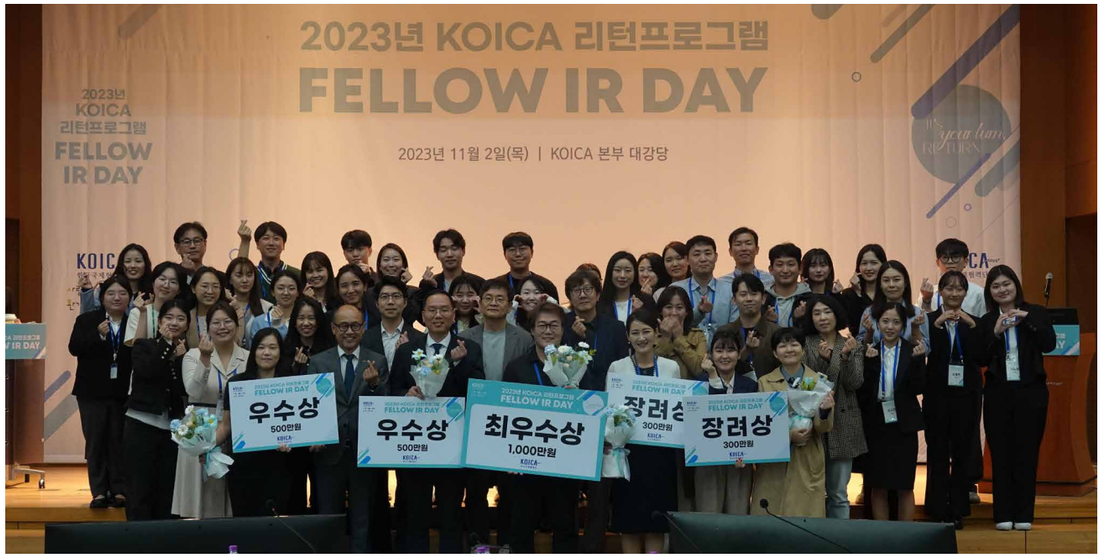

정은영 씨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촌 유치원 졸업식>


최하은 씨의 <내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에게>


오예진 씨의 <행복의 나라, 까르완다>


박수정 씨의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최주희 씨의 <세네갈의 '보석'들과 함께>



지난 11월 경기도 성남 코이카 본부에서 열린 리턴프로그램 펠로우 IR 데이 행사 전경

협력국과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

‘리턴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코이카

코이카가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리턴프로그램이다. 리턴프로그램은 코이카의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중 하나로 코이카 해외봉사단, 영프로페셔널(YP) 등을 통해 협력국에서 활동한 코이카의 글로벌 인재가 개발협력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과 상생할 수 있는 소셜벤처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 코이카 담당자가 말하는 리턴프로그램

Q 리턴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코이카의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발전 도상에 있는 협력국 개발 현장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경험한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국내 복귀 후 다문화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이카는 이에 부응해 기존 개발협력 유관기관 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활동을 종료한 청년 인재들이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리턴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제 4년의 시간이 흘러 실제 창업에 성공하고 성장 가도에 있는 초기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재는 리턴 펠로우 기업 지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참여팀들은 리턴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교육을 받나요?

리턴프로그램 참여팀에는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8~10주간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팀에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며, 기



우유경 코이카 평가실 대리

창업팀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Q 그밖에 코이카는 참여팀에 어떤 지원을 하나요?

리턴프로그램 신규팀으로 참가 시 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 자금과 함께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연계를 통한 컨설팅 제공, IR 피칭 대회 참여 기회, 코이카 협력기업과의 네트워킹 등이 제공됩니다.

준비	성장	도약
아이디어 획득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사업화
코이카 개발협력 경험을 통해 현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리턴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 검증 및 사업화 경험을 축적해 글로벌 리더 및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한다.	리턴프로그램 펠로우십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코이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현장 경험 (해외봉사, 영프로페셔널, 코디네이터 등) ⇩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검증 및 구체화 창업 역량 강화 ⇩ 아이디어 고도화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시장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 ⇩ 아이디어 사업화

Q 프로그램을 수료한 팀들은 실제로 대부분 창업하나요?

현재까지 약 13개 팀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그 외 법인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 등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리턴프로그램을 수료한 팀들은 법인 등록 외에도 국제기구 취업, ODA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경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Q 이들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팀별로 창업 준비 기간은 매우 상이해 평균을 내긴 어렵습니다. 2~3년 전까지는 리턴프로그램 수료 직후 창업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예비 창업가로서의 경험을 좀 더 쌓은 후에 법인 등록을 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Q 리턴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참여팀들이 투자를 유치하거나 국제기구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작년에는 ‘그린굿스’라는 리턴프로그램 출신의 기업이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5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창출하고자 하는 그린굿스의 노력이 빛을 발한 사례였습니다.

Q 리턴프로그램 펠로우십 제도는 무엇인가요?

리턴 기수료팀과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코이카 후원사 상 수상 기업들이 창업 동력과 소속감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리턴프로그램 펠로우십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이 제도를 통해 투자 유치 및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IR 데이, 리턴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들을 볼 수 있는 코이카 솔루션 데이 등을 개최함으로써 프로그램 성과 창출 및 확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Q 리턴프로그램 신청 시기, 참가 자격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리턴프로그램 신규팀 모집은 매년 5월쯤 진행합니다. 리턴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코이카 글로벌 인재 포함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해 사업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방법은 코이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Q 앞으로의 리턴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올해로 운영 5년 차에 접어든 리턴프로그램

리턴프로그램 지원 내용

교육 제공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IR 피칭 등 교육 제공
컨설팅 제공	일대일 매칭을 통한 전문가 및 선배 창업가의 컨설팅 제공
사업화 자금 지원	팀별 사업화 자금 500만 원 및 각종 상금 지원(우수 활동, IR 피칭 등)
네트워킹 추진	리턴 선배팀 및 코이카 협력기업과의 네트워킹 제공
스케일업 지원	제안서 컨설팅, 임팩트 투자사 연계 등을 통한 코이카 단내외 스케일업 지원

리턴프로그램 펠로우십 지원 내용

1. 전문 컨설팅	법률, 특허, 회계 등 기업 필요에 따른 컨설팅 제공
2. 제안서 컨설팅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참여 시 제안서 첨삭 지원
3. IR 데이 참여	리턴 펠로우십 IR 데이 참여를 통한 상금 지원 및 임팩트 투자 연계
4. 네트워킹	코이카 협력기업과의 네트워킹 지원 및 관련 행사 초청
5. 정기 정보 제공	코이카 기업 협력 프로그램 정보 메일링 제공
6. 교육 제공	코이카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강 기회 제공

은 글로벌 인재 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고도화해 많은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겠습니다.

2. 리턴프로그램 펠로우십 우수 사례

#1
"세네갈 예술가들과 참여 문화 예술 콘텐츠 제작"



↑ 드호와위망 정지은 대표 (리턴 4기)

Q 드호와위망의 주요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드호와위망은 참여 예술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사회적 기업입니다. 세네갈 예술가들과 협업해 예술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컬러링북을 제작합니다. 세네갈 예술가들에게 소셜 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공정한 보수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소셜 아트 프로젝트- 딸리베 아이들'을 통해서는 세네갈 딸리베 아이들의 꿈과 초상을 담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관련 굿즈를 판매합니다.

Q 리턴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결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에서 활동한 저는 세네갈에서 국립예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딸리베 아이들의 인식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로써 도움이 될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문화 예술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업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Q 리턴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았나요?

리턴 지원금으로 홍보물, 시제품 등을 제작했고 컬러링북 도안에 참여한 세네갈 예술가들에게 작품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리턴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역량 강화 교육과 IR 피칭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리턴 멘토님들께 한 달에 두 번 멘토링을 받아 저희 사업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의 사업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드호와위망은 예술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비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수익 창출을 통해 개발도상국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판매 활동에 더욱 주력하여 컬러링북과 같은 예술 콘텐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할 것입니다.

#2
"필리핀 소농들과 밀가루 대체할 그린바나나가루 개발"



↑ 코너스톤티엔엠 차홍선 대표 (리턴 2기)

Q 코너스톤티엔엠의 주요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코너스톤티엔엠은 필리핀에서 그린바나나가루 원료를 생산하고 이를 한국으로 수입해 그린바나나가루를 활용한 글루텐프리·슈가프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저당 쿠키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Q 리턴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2013년에 코피온 장기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로컬 NGO로 파견 활동을 했을 때 바나나를 재배하는 필리핀 소농들과 만나며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지에서 바나나로 만든 천연발효 식초와 자연주의 대안 식음료를 만들어 판매했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귀국하게 됐습니다. 귀국 후 코이카 리턴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Q 리턴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았나요?

리턴 지원금으로 필리핀에서 가져온 그린바나나가루를 실제 요리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셰프님과 함께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빵과 면은 만들기 어렵지만 쿠키와 컵케이크, 팬케이크, 휘낭시에, 와플 등은 만들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해 다른 제품과 섞어서 디저트를 만드는 믹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의 사업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그린바나나가루 중 우리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현재는 필리핀 B2B 시장과 유럽 쪽 해외 시장 진입을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나나아일랜드'라는 우리 브랜드를 한국 내에 천천히, 하지만 강력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50년 전 한국 도운 미국 봉사단원들과의 만남

"청년 시절 해외 봉사, 경쟁력 있는 미래 세대로 성장할 기회"



↑ 1970년대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미국평화봉사단 단원들과 한국 정부의 파견 봉사단원들이 경기도 성남 코이카 본부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화연 코이카 해외봉사총괄팀 과장, 김선기 코이카 해외봉사총괄팀 행정원, 제러드 컬직 오하이오대학 교수, 로저 히그비 변호사, 차수진 코이카 해외봉사모집팀 전임

<좌담회 참석자>
미국 제러드 컬직 오하이오대학교 교수·FoK 회장
로저 히그비 변호사
한국 이화연 코이카 해외봉사총괄팀 과장(좌장)
차수진 코이카 해외봉사모집팀 전임(前 캄보디아 청년중기봉사단)
김선기 코이카 해외봉사총괄팀 행정원(前 유엔자원봉사단 청년봉사단)

1970년대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던 미국평화봉사단 단원들이 한국 정부 파견 봉사단원들을 만나 소중한 해외 봉사 경험을 공유했다. 지난 11월 1일 경기도 성남 코이카 연수센터 라운지에서 개최된 '미국평화봉사단 동창회(FoK)* 좌담회'에서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50여 년 전 봉사활동을 위해 한국 땅을 밟았던 제러드 컬직(Gerrard Krzic) 오하이오대학교 교수와 로저 히그비(Roger Higbie) 변호사가 자리해 한국의 젊은 세대인 차수진 코이카 해외봉사모집팀 전임, 김선기 해외봉사총괄팀 행정원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봉사와 관련한 다양한 생각을 전했다. 그들은 국제 봉사가 단순히 타인을 돕는 행위를 넘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프렌즈 오브 코리아(FoK, Friends of Korea)**: 1966~1981년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평화봉사단원들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 간 문화 교류와 우호 관계 도모를 위해 2002년 설립됐다.

이화연 좌장 코이카 해외봉사총괄팀 과장(이하 이화연)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80대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20대 젊은 시절에 가난했던 한국을 찾아 봉사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한국에서의 봉사 계기, 힘들었던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봉사가 두 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코이카 해외봉사총괄팀 행정원(이하 김선기) 안녕하세요. 두 분 봉사 선배님들은 어떻게 국제 봉사 활동을 시작하셨고, 여러 나라 중 한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러드 컬직 오하이오대학 교수(이하 컬직) 저는 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했고,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어요. 브라질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현지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낯선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즐기는 것이 정말 좋았고, 현지인들과의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졸업 후엔 미국평화봉사단을 통해 한국 파견을 제안받았어요. 당시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기대감에 더 마음이 부풀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건 1977년 1월 10일, 제 생일이었죠. 한국은 마치 선물처럼 다가왔어요.



제러드 컬직 오하이오대학 교수이자 FoK 회장. 20대에 했던 평화봉사단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전한다.

김선기 저는 대학 졸업 후 태국으로 유엔자원봉사단(UNV) 청년봉사단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당시 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세상에 나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남을 돕는다는 것이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저와 참 비슷하시네요. 저는 당시 UNV에 근무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봉사 관련 정책 조사를 맡았는데요, 경제 규모 등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자국민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차수진 코이카 해외봉사모집팀 전임(이하 차수진) 저는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NGO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했어요. NGO에서 근무하면서 마다가스카르, 캄보디아, 에스와티니의 사업들을 통해 다양한 수혜자들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 현지에서 보내주는 보고서를 통해 그 삶을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삶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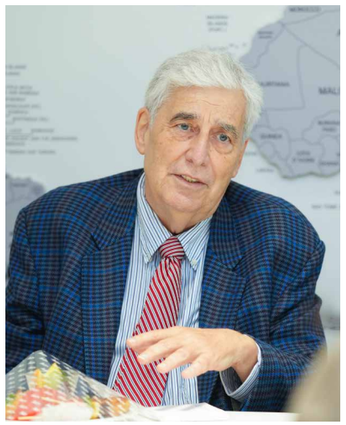
로저 히그비 변호사(이하 히그비) 제 동기는 평범했어요. 당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지도 않았죠.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기에 미국평화봉사단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저 어디든 가고 싶었고 정말 행운처럼 느껴졌죠. 실제로도 즐거운 경험이었고, 이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어디서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거든요.

김선기 미국에 평화봉사단 봉사자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현지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미국에서 인정해 주고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컬직 미국에서는 평화봉사단 경험을 정말 높게 평가해요. 1970년대에는 대학원 진학과 정부 직무 지원에도 우대가 있었어요. 연방 정부 직무에 지원했을 때, 평화봉사단 출신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죠. 한국에 대한 지식 유무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봉사한 경험 자체가 중요한 평가 요소였어요.

김선기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젊은 세대는 해외로 나가고 싶어도 경력이 단절될까 주저하거든요. 각기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장기간 휴학을 하고 봉사활동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봉사에 대한 두려움, 주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화연 과거에는 해외 봉사가 세계 견문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옵션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해외 봉사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김선기 행정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대학생들은 학점 포기, 장기간 휴학 등에 대한 부담감과 귀국 후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해외 봉사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이카는 청년들의 눈높이와 수요에 부합하고


로저 히그비 변호사. 해외로 나가 현지 생활을 경험한 봉사단은 다음 세대 국무부 또는 외교부 인력이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미국평화봉사단 단원들과 한국 정부의 파견 봉사단원들이 지난 11월 1일 한자리에 모여 해외 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 '청년 이니셔티브'를 올해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봉사단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청년들의 해외 봉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 중입니다. 또한 봉사 기간을 1년에서 5개월로 줄여 휴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는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프로젝트 봉사단도 기획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컬직 우리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미국 대학원에는 한 학기는 캠퍼스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평화봉사단에서 활동해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커리어가 끊길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오히려 그 봉사 경험을 통해 더 특별해지죠. 논문을 쓸 때도 실질적 경험이 생기고 졸업 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됩니다.

김선기 해외 파견 봉사단원들은 자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귀국 후 취업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는 것에 미국인들은 이견이 별로 없는지요?

히그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국내 봉사자와 해외 봉사자를 동등하게 보상하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평화봉사단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해외로 나가서 현지 생활을 경험한 봉사자들은 다음 세대 국무부 또는 외교부 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적 전문성과 국제 관계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 점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정부도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컬직 실제로 많은 봉사자들이 외교 분야로 진출했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전 주한 미국대사인데 한국에서 평화봉사단 활동을 했고 미국 첫 여성 한국 대사가 됐죠. 인기가 상당했어요. 20대를 한국에서 보내며 한국을 깊이 이해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커리어에 많은 영향을 줬고요.

김선기 히그비 교수님은 귀국 후 공공이 아닌 민간 부문으로 취업하셨는데, 이때도 봉사활동 경험이 도움이 되었나요?

히그비 젊은 세대는 주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은 절대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수도 있죠. 해외에서 배운 것은 경력을 떠나 모든 것에 도움이 돼요. 젊은 나이에 해외로 나가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컬직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두려워 말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20대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좋아요. 20대는 아직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가는 시기예요. 제게는 평화봉사단 경험이 인생을 이끄는 길잡이였고, 한국에 온 건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씨는 어떤가요? 봉사활동 한 것에 후회는 없는지요?

차수진 네, 후회하지 않아요. 봉사단원으로 지냈던 기간은 그 이후의 커리어 방향을 잡는 데 큰 영향을 주었어요. NGO에서 근무하며 보았던 보고서 속의 수혜자들의 모습,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만났던 수혜자들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이들의 삶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죠. 그 결과,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개발협력 주체인 코이카에 입사해 단기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커리어 방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코이카에 입사해 수혜자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고민하며 일하고 있어요.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그 이후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컬직 국제 경험은 저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970년대의 미국에, 저 멀리 한국까지 봉사를 다녀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당시 귀국 후의 저는, 남들과 다른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제 자신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죠. 그 다름을 공유하는 게 좋아서 여러분과의 얘기가 편하게 느껴져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공통된 특별함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김선기 마지막으로 해외 봉사를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컬직 저는 현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을 원했고, 평화봉사단이 제공한 것도 바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게 제 동기 중 하나였죠. 이 멋진 경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동안 성장한 자신이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잘 해낼 겁니다.

차수진 봉사단원으로의 삶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큰 보람이에요. 그 보람을 포기하기엔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어요.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코이카는 귀국 후 진로 개발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분야 취업 정보 교류 공간인 코이카 커리어센터, 봉사 경험에 기반한 사업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리턴프로그램, 귀국 후 진로 탐색 및 취업을 위한 국내 정착지원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귀국 후 삶을 계획할 수 있죠. '20대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정의해 놓은 타임라인에 맞추지 말고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화연 오늘 이렇게 네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해외 봉사를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20대와 80대의 나이 갭이 크게 있었지만 해외 봉사라는 경험을 통해 하나가 되었던 시간이었고, 꽤 진솔하고도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20대가 고민하던 것들을 이미 앞서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신 미국평화봉사단 단원분들을 보며,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해외 봉사에 자신 있는 선택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11월 경기도 성남 코이카 본부에서 개최된 '미국평화봉사단 동창회' 좌담회에 참석한 차수진 코이카 해외봉사모집팀 전임(왼쪽)과 김선기 코이카 해외봉사총괄팀 행정원

아시안 식당 차린 튀니지 최초의 한국인 셰프 나현정 대표 인터뷰

봉사 뜻 품고 밟은 그곳, 인생 황금기 연 기회의 땅으로

낯선 튀니지 땅을 처음 밟았을 때만 해도 봉사활동이 끝나면 다른 나라로 건너가 요리사로 취업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2년간 튀니지에서 지내다 보니 왠지 이곳이 기회의 땅처럼 느껴졌다. 아직은 튀니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시안 음식이지만 어떻게 운영하면 현지인들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식당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르밤부'는 그렇게 탄생했다. 르밤부는 튀니지 요식업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첫 번째 한국인, 나현정 대표의 성공 스토리 첫 장이다.

Q 나현정 대표님, 현재 운영하고 계신 식당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튀니지에서 제가 운영하는 식당 이름은 '르밤부(Le bambou)'예요. 2011년 7월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미지나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상호를 결정했습니다. 르밤부는 프랑스어로 대나무라는 뜻이에요. 메뉴는 동북아시아부터 동남아시아까지 모두 아우르는 아시안 요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매운 해물덮밥입니다. 튀니지 사람 누구에게 추천해도 다들 좋아하십니다.

Q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튀니지 식당 사장이 된 이력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코이카 봉사단과는 처음 어떻게 인연을 맺었나요?

2007년에 신문을 읽다가 코이카에서 해외봉사단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접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수많은 항목 중에 요리 분야가 있더군요. '이거다!' 싶어서 바로 지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봉



튀니지에서 아시안 레스토랑 '르밤부'를 오픈한 나현정 대표. 한때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됐다.



튀니지인 직원들과 함께한 나현정 '르밤부' 대표. 나 대표는 한국인과 전혀 다른 튀니지인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 레스토랑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사하는 일을 꿈꿔 왔거든요.

Q 튀니지 땅을 처음 밟았을 때를 기억하나요?

뚜렷이 기억해요. 아프리카 대륙은 처음 밟아보는 거였으니까요. 유난히 파란 하늘과 높지 않은 건물들, 지중해 바닷가,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로마시대 유적지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Q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튀니지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튀니지는 GDP(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관광업이 차지할 만큼 관광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인지 관광업 관련 인프라는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고, 주요 도시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높은 수준의 관광교육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하마멧이라는 바닷가 관광도시의 관광교육 전문학교에서 아시아 음식 조리학을 2년간(2009~2010년) 강의했습니다.

Q 그러다 어떻게 이곳에서 식당을 할 결심을 했나요?

제가 머물 당시 튀니지 전국에 아시안 식당이 단 두 개뿐이라 블루오션이라 판단했습니다. 원래 코이카 봉사활동이 끝나면 여기서 배운 프랑스어를 바탕으로 벨기에나 캐나다 동부, 혹은 프랑스로 취업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3년 정도 식당을 운영하다가 해외 취업을 나가도 아직 20대이니 여러모로 기회가 많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창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식당을 준비하면서는 아직 튀니지에서 생소한 오픈키친으로 식당을 운영해 제가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로도 파급력이 있을 거란 계산도 했어요. 예상은 적중했고 입소문도 빠르게 나서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코이카 봉사단원의 경험이 식당 운영에 도움이 됐나요?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있었던 2년간의 튀니지 생활이 식당 운영의 밑바탕이 됐어요. 현지인들과 지내며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언어를 배웠고 튀니지의 문화, 전통, 자연환경, 식습관 등 현지에서 살아가고 비즈니스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봉사단원으로 지내면서 거의 습득했습니다.

Q 튀니지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식당을 처음 오픈했을 당시에는 아시안 식당이 없다 보니,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거래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은 아시안 식당이 생겨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 모든 공문서가 아랍어로 돼 있어 처음 식당을 열 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외에는 다 만족해요. 실제로 이곳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인건비가 한국보다 월등히 저렴하고, 식당 오픈을 위한 초기 자본금도 한국보다 적게 듭니다. 이곳이 한국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 빼고는 일상과 사업 운영 모든 측면에서 좋습니다.

Q 튀니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많이 다른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이니 하나부터 열까지 많이 달라요. 언어, 문화, 역사, 생김새, 입맛, 기질 등 뭐 하나 같은 게 없죠. 그 다른 점을 장점이라 생각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단점이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는 이곳의 날씨, 천혜의 자연환경,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펼쳐지는 지중해, 그리고 튀니지 사람들까지 모두 좋습니다.

Q 원래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인가요?

네,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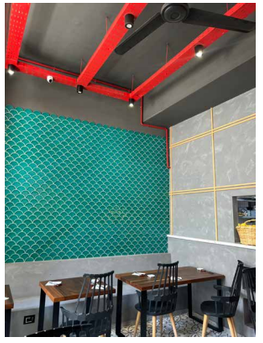
Q 해외 취창업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나 꿀팁이 있을까요?

해외에서의 취업이나 창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미리 준비하시고 다만 현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을 테니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부딪치면 좋겠습니다.
외식업 창업에 조금이나마 노하우를 드리자면 첫째, 창업하고자 하는 식당의 콘셉트와 정확한 타깃층을 잡은 상태에서 메뉴 선정을 합니다. 둘째, 메뉴를 선정했다면 현지에서 1년 내내 고르게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국처럼 유통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서 식재료를 어떻게 조달할지 먼저 해결책을 찾아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점하고자 하는 식당 주변의 상권 분석이 필요합니다. 식당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의 상권 외에도 전방위적인 상권 분석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배달업체들이 어느 나라나 왕성하게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 외에도 배달 상권 범위를 좀 넓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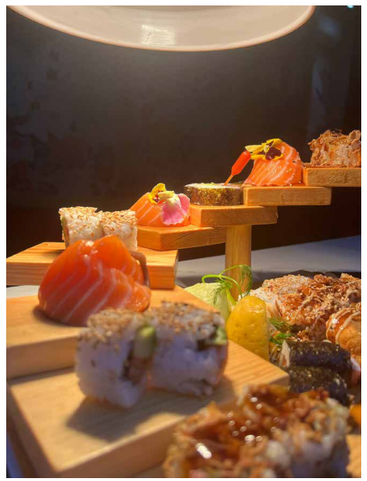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 외에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캐주얼한 한식당을 창업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확실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와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수요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곳이 한국 음식과 더불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보금자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르밤부 레스토랑 전면과 내부 모습







르밤부의 시그니처 메뉴인 매운 해물덮밥과 모둠 캘리포니아롤, 깐풍새우튀김(왼쪽부터)



코이카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0일 동아프리카 코모로의 폭력 피해 아동 및 여성을 지원하는 폭력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수혜자와 센터 운영진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코모로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사업

위탁가정·폭력회복지원센터 운영해 폭력 근절

올해 열여섯 살인 누스라는 동아프리카 코모로의 안주안섬에 있는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다. 누스라는 1년 전, 가족들이 그녀의 조혼을 결정하면서 집을 떠나게 됐다. 본인 동의 없는 결혼이었다. 문제는 결혼 초기 남편이 암살당하면서 시작됐다. 누스라는 범죄 공범으로 몰려 교도소에 구금됐다. 다행히 남편을 살해한 범인들이 체포됐고 1심 재판소인 무사무두 법원은 누스라를 위탁가정으로 보냈다. 누스라는 "새 가족을 만나고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꿈을 이루기 위한 지원과 응원 덕분에 자존감도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코모로는 인구 80만 명의 작은 섬나라다. 18세 이하 청소년 인구가 35만 명(47%)에 이르는 젊은 국가이기도 하다. 다만 이슬람 문화와 코란의 엄격한 해석·적용이 이뤄지는 탓에 코모로 여성들은 취업에서 차별을 받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 조혼율은 약 26%에 달한다. 조혼에 따른 가정폭력, 여성의 교육 포기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동 보호 역할을 하는 위탁가정의 필요성이 높지만 사회적으로 반대 정서가 넓게 깔려 있다.

코이카는 코모로 여성·아동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인권보호표준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을 2021년부터 3년간 진행했다. 총 예산 300만 달러가 투입된 사업으로 직간접 수혜자는 40만 명에 이른다.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위탁가정을 늘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박근선 코이카 케냐사무소 개발협력코디네이터는 "코모로 정부의 위탁가정 운영에 대한 반대 정서는 인근 국가와의 정치외교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당히 민감한 주제였다"라며 "해당 사업 활동을 포기하기보다 유니세프와 함께 위탁가정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했고, 코모로 정부 또한 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모습을 보며 위탁가정 운영에 결과적으로 동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이번 사업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코이카는 폭력회복지원센터(Listening and Care Center)를 설립하고 현지 운영진을 꾸려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폭력회복지원센터는 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과 여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체 피해와 심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코모로에 국가적으로 이런 기능을 하는 조직이나 기관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모로 정부는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부지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 인력을 지원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센터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상호 동의하면서 코모로 정부는 센터 운영 인력의 월급과 복리후생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률도 제정했다. 현재 코모로 전역에 5개의 폭력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유니세프는 자체적으로 5개의 추가적인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추진 중이다.

폭력 피해자의 경제·사회적 회복을 위한 '캐시트랜스퍼(Cash transfer)' 프로그램도 인기다. 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술 훈련과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인 할리마는 경제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재봉 기술 교육을 받고, 심리적 지원과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에도 참여했다.

그는 "작은 봉제 사업을 시작해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방 두 개짜리 집을 지을 수 있었다"며 "지금은 수입이 늘어나서 평온하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자들은 코모로 전통 결혼 의상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 코모로 평균 대비 높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폭력 방지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청소년 클럽도 100개 넘게 운영되고 있다. 대다수의 클럽은 학교 소속으로 설립됐지만 지역 스포츠 클럽 기반으로도 30여 조직이 활동 중이다. 청소년 클럽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 클린데이 개최 등을 수행해왔다. 올해 초에는 현지에서 유행하는 콜레라 퇴치를 위한 인식 개선 활동도 벌였다.

팻시 청소년 클럽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사이드 다루에체는 "클럽 설립 이후 아이들의 사회성과 자신감이 크게 향상됐다"라며 "처음에는 수줍음 많고 내성적이었던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클럽에서 주최하는 그룹 활동과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은 리더십과 팀워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학업 성적과 전반적인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코모로 현지 정부의 만족도도 높다. 코모로 안주안섬의 시티나 살림 젠더홍보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결혼이 크게 감소하고 관련 법률 문건이 보급됐다"며 "교육 이니셔티브, 인식 개선 캠페인,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수천 명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코이카 관계자가 지난 5월 23일 미스타미올리(Mistamiouli) 지역 조마니(Djomani) 인근 마을에서 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술 훈련 실시 및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는 활동인 '캐시트랜스퍼' 프로그램 참여자를 만났다.



지난 5월 24일 코이카 케냐사무소 관계자와 유니세프 코모로사무소 관계자들이 모여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폭력 방지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모로 청소년 클럽의 참가자들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 그림 공모전 당선작

미래 세대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미래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이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린이들이 그린 미래,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순수하고 기발한 상상력의 세계로 지금 떠나봅니다.



최서은 어린이 작품



박유주 어린이 작품



이재아 어린이 작품



오연서 어린이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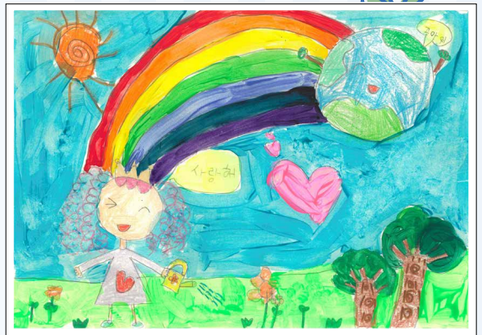
안소윤 어린이 작품



오연준 어린이 작품



이선우 어린이 작품



이재이 어린이 작품



김지석 어린이 작품



이지유 어린이 작품



정이레 어린이 작품

코이카 경력사다리 타고 꿈 이룬 양다영 교육 컨설턴트 인터뷰

“국제기구가 꿈? 그들이 탐낼 만한 인재로 성장해야”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유엔(UN) 같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길 희망한다. 실제로 많은 청년이 국제기구에서 일하겠다는 꿈을 이루고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 이들에게 청년 전문가인 양다영 유니세프 교육 컨설턴트는 좋은 본보기이자 멘토다. 현재 유니세프 방글라데시사무소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양다영 교육 컨설턴트는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을까. 그는 모든 것의 시작이 코이카와의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양다영 유니세프 방글라데시사무소 교육 컨설턴트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부터 유니세프(UNICEF) 방글라데시사무소에서 교육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양다영입니다.

Q 현재 유니세프 방글라데시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현재 저는 방글라데시사무소의 교육팀에서 Alternative Learning Programme(ALP)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방글라데시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으며, 팀 내 다양한 ALP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곧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사용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기대와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방글라데시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말씀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그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 경험입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저에게 항상 중요한 자양분이 되며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 외 활동 중에서는 방글라데시사무소에서 매년 기획하는 제철 과일 축제와 방글라데시 새해 기념행사 등 다양한 직원 행사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 외국인 직원들도 방글라데시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Q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 처음 했나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제기구에서 일하겠다는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학생 때는 매 학기 방학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국제기구와의 첫 인연은 KOICA-UNV(UN Volunteers) 대학생 봉사단* 을 통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어떤 과정을 거쳐 오게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국제기구에 진입하기 위해 코이카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국제기구에 도전하려는 꿈을 가지고 처음부터 국제기구 채용 사이트에서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 몇십 개의 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한두 군데에서 연락이 올까 말까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경쟁하는 무대인 만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니세프 방글라데시사무소 프로그램의 창업 전문가 과정을 통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창업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학생들

사실 유엔의 경우에는 UNV와 같은 유엔 봉사단 자리라도 석사 학위와 관련 경력과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코이카 중기봉사단과 코이카 영프로페셔널(Y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력을 쌓았고 국제교육개발협력 석사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KOICA-UNV 대학생 봉사단 프로그램의 경우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대학 재학생 및 졸업 유예생만 지원이 가능해서, 대학원을 거의 마칠 무렵에 지원해 석사 학위 취득 후 바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캄보디아사무소에 KOICA-UNV 대학생 봉사단으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단 활동을 마친 후에는 코이카 예비조사 전문가 파견 기회도 적극 활용했고, 이때 쌓은 경험으로 현재 유니세프 방글라데시사무소의 컨설턴트 포지션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Q 그 과정에서 코이카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이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KOICA-UNV 대학생 봉사단, 컨설턴트, 다자협력 전문가(KMCO)***에 지원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제기구 지원 시 개발도상국에서의 실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이카 중기봉사단으로 캄보디아에서 봉사 활동을 했던 경험과 코이카 영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근무한 경험, 코이카 예비조사단으로 케냐 및 탄자니아에서 활동한 경력이 중요한 합격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다자협력 전문가 기회를 얻게 되어 곧 유니세프 가나사무소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해외 근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 준 코이카 덕분에 제 커리어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다영 교육 컨설턴트가 ‘포헤라 보이삭(Pohela Boishakh)’이라고 불리는 방글라데시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전통의상을 입고 팀 동료들과 함께한 모습

Q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국제기구에서 한 국가의 정책, 교육과정, 제도 등 영향력 있는 요소들에 직접 개입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 함께하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또한 국제기구의 복지와 혜택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유엔에서는 연간 30일의 휴가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 휴가를

* **UNV 대학생 봉사단** : 유엔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

** **영프로페셔널** : 개발협력 분야의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사무소,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하면서 현장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현장 경험 중심 사업

*** **다자협력 전문가** :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휴가를 사용해 진정한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유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면 정착 지원비, 배우자 및 자녀 지원비, 보험 혜택, 연금 등 최고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Q 반대로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어려움은 끝없는 채용 과정과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경우, 한 번 채용되었다고 해서 같은 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유엔 정식 직원도 국가에 따라 3~4년마다 재지원하는 방법으로 다른 국가 사무소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많은 포지션이 계약직으로 운영되며,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다시 채용공고를 찾아 지원하고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는 끝없는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차례 채용 과정을 겪다 보면 이번 계약이 끝나면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유엔 본부가 아닌 국가 사무소에서 근무할 경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 환경이 열악합니다. 꼭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할 때도 많고, 때때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이 정도의 어려움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싶은 후배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저도 제 길을 찾고 개척하는 과정에 있지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국제기구는 단순히 행정 업무 처리 능력만 보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재를 찾습니다. 즉 그 분야에 바로 투입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 단순히 국제개발협력 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 영양, 보건, 교육, 환경 등 특정 분야를 조기에 찾아 해당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제기구를 목표로 삼는 것이 채용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국제기구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선발하는 포지션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자신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국제기구 진입'을 목표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를 찾고 그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은 후 국제기구에 도전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 최대한 많은 기회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국제기구 직원들도 처음부터 국제기구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그 분야 내에서도 더 세분화된 분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다영 유니세프 방글라데시사무소 교육 컨설턴트(왼쪽에서 두 번째)가 방글라데시 수혜자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공장에 취업해 납품하는 물건을 사업 현장에서 한국대사관 참사관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Q 10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사실 이 분야에서 근무하다 보면 현재 포지션의 계약 종료 시점까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당장 가까운 미래에 어떤 국가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저는 그때도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며,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란 사실입니다. 제 목표와 바람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코이카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재까지 코이카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력을 나열해 보니 코이카 중기봉사단, 코이카 영프로페셔널, KOICA-UNV 대학생 봉사단, 코이카 사업 예비조사단 활동, 코이카 사업 연계 전문가 활동, 다자협력 전문가 등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코이카에 무척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에티오피아 직업기술대학 운영 사업

에티오피아 청년 실업 문제 '기술 인재 육성'으로 해결하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됩니다!"

지난 8월 24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LG- 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이하 희망직업훈련학교)의 10주년 기념식과 여덟 번째 졸업식이 열렸다.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코이카와 LG전자가 2014년 설립한 2년제 IT기술 교육 전문학교로, IT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현지 청년들에게 교육과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무상 교육 기관이다. 이날 모인 2024년 졸업생 83명은 모두 취업·창업 등으로 IT 분야 진로를 확정했다. 행사에 참석한 졸업생들은 "막막하기만 했던 미래가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라며 기뻐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가 목표라고 밝힌 졸업생 베메넷 테데스(21) 씨는 "이곳을 졸업하는 것은 제게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지원을 잊지 않고 더욱 발전하겠다"며 모교에 대한 사랑과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심각한 청년 실업… 원인은 기술 인력 부족

행사에는 솔로몬 소카 에티오피아 고용노동부 차관, 티라훈 워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시장실 총괄, 정강 주(駐)에티오피아 한국대사, 김용우 사단법인 월드투게더 회장, 이일환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대표 등 주요 인사 16명도 자리했다.

희망직업훈련학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1%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나라지만, 실업률이 18%에 달하는 모순적 상황에 빠져 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15~64세 노동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51.5%를 차지하는 '젊은 나라'라는 점이 가장 큰 성장동력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한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기술 인력 부족'에서 찾는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단순 노동이 아닌 IT 관련 숙련 전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현지 청년들은 비숙련 단순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장기간 분쟁과 빈곤 문제로 허덕여온 에티오피아 내에서 기술 인력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티오피아는 2020년부터 '디지털 에티오피아 2025'를 국가 성장 전략 기조로 내세우고 IT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른 직업훈련학교들도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유럽 등 다양한 나라와 협력하며 적극 운영 중이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곳은 많지 않다.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지금까지 총 54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취업과 창업을 포함해 졸업생 전원이 일자리를 찾아 '취업률 100%'를 자랑하고 있다. LG전자 현지 법인이나 협력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LG- 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졸업식에 졸업생들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앞줄 왼쪽부터) 조한덕 코이카 에티오피아사무소 소장, 김용우 사단법인 월드투게더 회장, 정강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대사, 솔로몬 소카 에티오피아 고용노동부 차관, 이일환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대표, 타리쿠 게메추 희망직업훈련학교 학장

사에 취업한 경우도 있고,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나왔다. 타리쿠 게메추 희망직업훈련학교 학장은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우수 직업훈련학교로 인정한 곳"이라며 "다른 직업훈련학교는 취업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다"고 했다.

코이카-LG-월드투게더 전문성 빛난 '3자 협력' 성과

희망직업훈련학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을 지원하고자 했던 LG전자의 사회공헌 의지에서 출발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 성과를 만들기 위한 코이카의 IBS(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와 뜻을 같이하면서 이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빚어내기 시작했다. 코이카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에티오피아 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의 기틀을 짜면, LG전자가 최신 IT 장비와 트렌드에 맞는 기술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을 졸업 즉시 글로벌 IT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키워냈다. 여기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비영리단체이자 에티오피아에서 참전용사 후손 지원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단법인 월드투게더가 현지 문화와 상황에 맞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현지 100% 맞춤형' 사업의 진가는 학교 운영의 세부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10년간 학교가 자리 잡고 초기 졸업생의 안정적 취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했다. 취약계층 청년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와 식사까지 제공했다. 541명의 졸업생들이 국내외 IT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 간 끈끈한 네트워크도 생겨났다. 올해 희망직업훈련학교를 졸업한 이욥 디가페(21) 씨는 "IT 기술을 배우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수입이 없는 학생 때는 교통비나 식비마저 부담이라 꿈만 꾸고 있었다"면서 "이 학교에선 통학 셔틀버스와 점심도 제공해줘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 현재 이욥은 IT 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취업 지원뿐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졸업생들에게 기술, 네트워크, 자금 지원을 하면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역할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연수를 보내 최신 기술을 익히고 커리큘럼을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단순 기술뿐 아니라 문서 작성, 한국어,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등을 교육한다.



현재 IT 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희망직업훈련학교 졸업생 이욥 디가페 씨



LG- 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전경(위)과 학교 시설들

희망직업훈련학교를 졸업한 뒤 LG전자 두바이 법인에 취업한 우르쿠 타델레(24) 씨는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든 질문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는 "전에 에티오피아의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배우다 자퇴했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 여러 직업훈련학교를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어 고민이 많았다"며 "이 학교에선 최신 장비로 최신 기술을 마음껏 배울 수 있어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희망직업훈련학교의 성과는 단순히 현지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LG전자를 포함한 한국 기업에도 양질의 인재를 수급하는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졸업생 네웨이 실레시(24) 씨는 "졸업 이후 에티오피아 현지 IT 기업인 '알타 콤퓨텍'에서 근무했고, 최근에는 동아프리카 모리셔스에 있는 '드래곤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드래곤 일렉트로닉은 모리셔스의 LG 공식 총판으로, LG전자의 기술과 운영 방침, 비즈니스 문화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게 이직에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프로젝트의 종착점은 학교의 '지속가능성'이다. 학교 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일부 운영 예산을 학교 내에서 충당하는 등 학교가 스스로 인재를 배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코이카는 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적 지원과 네트워킹 등을 도울 예정이다. 김혜원 코이카 기업협력사업팀장은 "희망직업훈련학교가 단순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기술과 도전이 시작되는 에티오피아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혁신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Interview

양승환 LG전자 에티오피아 지점장

"진심으로 도왔더니 더 큰 비즈니스 기회로 돌아와"



Q 희망직업훈련학교 이전부터 에티오피아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에 애써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LG전자 에티오피아 지점의 탄생 목적 자체가 비즈니스보다는 사회공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백신 공급 등의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과거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도와준 나라이니 도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만드셨으니까요. 에티오피아가 소중히 길러낸 청년들을 대한민국을 위해 보내준 것처럼, LG전자가 그간 쌓은 첨단 기술력을 그들과 나누면 자립과 지속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상 원조에 전문성을 가진 코이카와 함께한 겁니다.

Q 기술 교육이라면 LG전자 혼자 힘으로도 가능했을 텐데요.

단순히 기술을 전하고 생색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돈과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죠. 현지와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아는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코이카와 손을 잡은 이유입니다.

Q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어떤 기술을 가르치나요?

ICT 정보통신, 전기전자 관련 기술들이 주요 커리큘럼입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에 맞는 매너를 갖추도록 문서 작성 방법, 비즈니스 매너 등도 가르칩니다. 인턴십 등으로 세계 각국의 LG전자 및 관계사로 진출을 돕는 제도도 있어서 한국어, 한국 문화, LG전자 제품과 기술에 관한 교육도 제공합니다.

Q 교육에 최신 장비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최신 장비로 최신 기술을 배워야 의미 있는 숙련 노동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고맙게도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본부에서 자사 최신 제품을 기증해주고 있습니다.

Q 취업률 100%를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양질의 교육에 주력하면서 행정적 지원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졸업 학년이 되면 학생들에게 취업, 창업 중 희망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겐 LG전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턴십, 우수 학생 취업 연계 등의 지원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모리셔스 등 해외 취업도 장려하고 있어요. 창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술 외적으로 필요한 법률, 회계 등 경영 지식을 배우게 하고 낮은 이자에 사무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요한 도구나 비품 지원도 합니다. 덕분에 이들을 채용하거나 협업하는 기업들도 만족도가 높아 LG전자 내부에서도 의외의 선순환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중입니다.

Q 말씀해주신 '선순환'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파트너를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술 숙련도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통용되는 매너나 문화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선 기술과 함께 한국어, 한국 문화, 비즈니스 매너까지 가르치니 양질의 현지 인재 채용이라는 문제에도 해법이 보이는 겁니다. 또 이들과 가족들이 LG전자와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이 높아지니 '전팬'을 만드는 등 마케팅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저 보은하려 했던 것뿐인데, 사업적으로도 도움을 받게 된 거죠.

Q 이루고픈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가 뛰어난 능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는 에티오피아 최고의 명문이 되는 겁니다. 향후 한국어 교육, B2B 교육, 기술직 외 경영, 회계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고 에티오피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정식 학위를 받는 학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선행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고, 상호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더 큰 흐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 5월 키르기스스탄 국립기술대학 내에 설치된 '팹랩 비슈케크'를 방문한 아클벡 자파로브 총리(왼쪽)가 미를란 초느바예프 국립기술대학 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IT디지털 교육 지속 및 취업·창업 지원 산학협력 확대 사업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공간… '팹랩'이 만드는 창업 생태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공간이 있다. 국립기술대학교(KSTU) 내에 설치된 '팹랩(FabLab) 비슈케크'다. 이곳에서는 병원에서도 만들지 못했던 의수를 만들고, 시중에서 찾기 어려운 키르기스어 점자책도 찍어낸다. 3D 프린터 장비로 시제품을 만들고, 우수한 제품은 창업 아이템으로 이어지는 취창업 교육장 역할도 한다.

팹랩은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시작된 디지털 공방이다.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등 공작기계와 IT를 통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방문해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직업훈련은 물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로 확산했다.

팹랩 비슈케크는 코이카 지원으로 2020년 10월에 설립됐다.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IT 산업 육성 진흥 정책과 함께 코이카에서 IT 교육을 전수하고 디지털 제조기술 인재를 양성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시행된 1차 사업에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공간의 탄생

키르기스어 점자교과서를 만드는 일도 팹랩에서 이뤄진다.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모국어인 키르기스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점자책 대부분은 러시아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모국어인 키르기스어를 배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키르기스스탄 국립기술대학교의 투르달리예바 아이잣 교수는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러시아어 점자책 대신 키르기스어 점자책을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3D 프린터로 아크릴판에 점자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두꺼운 종이에 수작업으로 제작한 점자책은 손으로 문질러 읽을 때마다 훼손되지만 아크릴판 점자책은 그럴 일이 없다. 사업 첫해인 2022년에만 200권 가까운 점자교과서를 만들었고, 국어 과목은 물론 중학생이 사용하는 기하학 수학책도 제작했다.

팹랩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해 손가락 관절이 움직이는 의수를 만들기도 한다. 열한 살 때 석탄가공 공장에서 오른팔을 잃은 배스파예브 아미르(17) 군은 지난해 팹랩에서 제작한 맞춤형 의수를 무상으로 선물받았다. 두 손으로 물건을 자유롭게 집을 수 있게 된 아미르 군의 꿈은 프로그래머다. 아미르는 "팹랩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고 IT 개발자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말했다.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배스파예브 아미르(오른쪽) 군에게 팹랩에서 3D 프린터로 제작한 의수를 선물했다.

국가 IT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도 힘써 키르기스스탄 국립기술대학은 팹랩 사업을 통해 IT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다. 우선 국립기술대학에서 팹랩과 연계한 학점인정제 수업이 마련됐다. 현지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현지 교육자가 디지털 제조 장비 활용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식이다. 매년 120명씩 총 360명이 수업을 마쳤다. 대학교수 대상의 전문가 양성 과정도 별도로 진행했다. 올 상반기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제조 교육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배출한 디지털 제조 기술 보유 인력은 500명이 넘는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기업가 정신 교육은 물론 취창업 박람회,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2박 3일간 '팹랩 비슈케크 메이커톤 2023(FabLab Bishkek Make-A-Thon 2023)'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온실 스마트팜, 관개수로, 양계·육묘 등 농업에 IoT를 접목하는 다양한 시제품을 출품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아직 한국과 같은 국가자격증제도 시스템이 없다. 이 때문에 팹랩에서는 국가자격인증센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성훈 팹랩 비슈케크 지부장은 "팹랩 자격증을 통해 더 많은 수료생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개인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키르기스스탄을 넘어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인정받는 교육자와 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팹랩 비슈케크는 내년에 소형 산업용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금속 3D 프린터와 쥬얼리 제작에 특화된 3D 프린터 장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등의 교육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6~8일 키르기스스탄 국립기술대학교에서 열린 '팹랩 비슈케크 메이커톤 2023' 현장

캄보디아 산학연계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사업

한국과 캄보디아 청년이 함께 창업한다면?



지난 11월 15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24 한국-캄보디아 ICT 창업 교류 프로그램' 성과공유회에서 최종 우승한 '크라체(KRATIE)' 팀을 비롯한 전체 연수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지리적 위치와 사회문화적 특성은 다르지만, 양국의 아이디어를 합친 창업 아이템은 모두에게 확실한 메리트를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1월 15일 한양대학교 학생복지관 2층 라운지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학생으로 이루어진 6개 팀이 창업 아이템을 발표했다. 이들이 낸 창업 아이템은 ▲대기열 관리 플랫폼 ▲건강식품 개발(발효현미 요거트) ▲플라스틱 자동분류 재활용 솔루션 ▲자녀 관리 솔루션 ▲스마트 관개 시스템 ▲포멜로(과일)를 활용한 제품 개발 프로젝트였다.

각 팀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갈고닦은 창업 아이템을 일목요연하게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의 어려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답변했다. 영락없는 '프로'의 모습이었다.

6개 팀의 발표는 2시간 30여 분 동안 이어졌고, 최종 심사 결과 동남아시아의 감귤류 과일인 포멜로를 스마트 파밍 시스템으로 길러 파우더로 만드는 아이템을 낸 '크라체(KRATIE)' 팀이 최종 우승했다. 캄보디아에서 온 소티비 토언(Sotheavy Thoeun) 학생과 한양대 김효나·하서연·김민경 학생은 환호했고, 다른 팀원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우승팀은 1,000달러의 창업 지원금을 받았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학생들이 모여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한 이 자리는 코이카와 한국생산성본부, 한양대학교가 캄보디아 국립창업보육센터(National Incubation Center of Cambodia, 이하 NICC)와 함께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캄 대학 ICT(정보통신기술) 창업 교류 프로그램'의 최종 성과공유회였다.



지난 11월 15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24 한국-캄보디아 ICT 창업 교류 프로그램' 성과공유회에서는 한국-캄보디아 학생으로 꾸려진 6개 팀이 6개월 동안 갈고닦은 창업 아이템을 소개했다.

코이카, 캄보디아에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

한국 정부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화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중점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차세대 교류 증진'을 제시했으며, 캄보디아 정부도 '2021~2035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청년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코이카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 산학연계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사업'(791만 달러)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캄보디아의 기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다각화를 실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코이카는 지난 3월 14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자리한 왕립프놈펜대학교(RUPP) 내에 NICC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한국의 지원으로 캄보디아 청년들이 혁신 창업의 꿈을 키워 갈 '디지털 스타트업의 메카'가 탄생한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최초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인 NICC를 '국립 기관'으로 지정했다.

NICC는 약 2,300㎡ 규모의 4층 건물에 사무실, 회의실, 시제품 제작소, 디지털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다. 31개의 캄보디아 예비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이 이 시설에서 캄보디아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있다. 31개 입주 기업들은 시설 외에도 NICC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및 컨설팅,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캄보디아 내 경진대회에서 우승하여 4만 달러의 상금을 받기도 하고, 한국 기업으로부터 1만 달러, 일본 기업에서 100만 엔 투자를 유치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립창업보육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기술 창업 교육 과정(스타트업 캠프)에서 교육받는 예비 창업가들

한-캄 대학생이 함께 만드는 창업 아이템

코이카는 NICC를 통해 캄보디아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사업 공간과 초기 자금 조달, 경영 및 디지털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캄 대학 ICT 창업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해 양국의 미래 세대가 협력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대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현지에서 시장 조사 및 스타트업과 교류하고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청년들이 협력하여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은 양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창업 아이템을 개발한다는 차원을 넘어 양국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 큰 가치가 있다.

한국 대학의 예비 창업팀들은 캄보디아를 방문해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지 시장 조사 및 스타트업과의 교류를 통해 캄보디아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다. 캄보디아 창업팀도 한국을 방문해 우수 스타트업을 견학하고 전문가 멘토링, 한국 투자자 대상 사업 소개 등을 통해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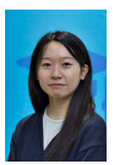
올해에는 지난 5월부터 교류 행사를 시작해 한양대 예비 창업팀이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시장 조사 및 중간 평가를 진행했다. 11월에는 캄보디아 창업팀이 한국을 방문해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했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주하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연수생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캄보디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발함으로써 한-캄 대학 창업 교류 행사에 대한 관심을 전국으로 확산했다. 캄보디아 전 지역 청년 참가로 창업 아이템이 더욱 풍성해졌는데, 이번에 우승한 크라체(KRATIE) 팀의 아이디어만 봐도 그렇다. 캄보디아의 '끄라체(Kratie)'라는 지방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한국(Korea, KR) 학생들과 한 팀이 되어, 끄라체 지방의 특산물인 포멜로를 스마트 파밍하는 사업을 제안한 것에서 팀명을 코리아(KR)+끄라체(Kratie)를 줄여 크라체(KRATIE)로 정한 것이다.

양국 창업 생태계 연결 창구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코이카는 이후에도 NICC와 협력해 대학 ICT 창업 교류 프로그램 외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원더스 인터내셔널과 함께 캄보디아 농촌 청년들 대상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 유치 및 캄보디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과 연계를 추진해 양국 창업 생태계의 연결 창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연수생 인터뷰



정서진(한양대 건축학부 4학년)

"예전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나라의 창업 생태계와 방식을 배우고 싶어 이번 창업 교류 행사에 지원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현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같은 듯 다른 창업 방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한 멘토링을 통해 시장 분석 데이터를 찾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무엇보다 캄보디아 친구들과 협업하면서 언어장벽을 극복하고 팀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창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응안 찬다라보파바테이(캄보디아 CamEd 비즈니스 스쿨)

"한국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창업 과정에서 시장 조사 방법, 아이템 구현, 운영 전략 등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캄보디아에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현지 팀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류 프로젝트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양국의 경제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콜롬비아 나리뇨주의 여성 협동조합 '아소팔미라' 조합원들

콜롬비아 농촌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소득 개선 사업

'우리가 살린다' 마을 농가 일으킨 콜롬비아 우먼파워

콜롬비아는 지난 60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진 국가 중 하나다. 무장 게릴라 단체가 정부군과 무력 충돌을 반복하고, 여기에 마약 조직까지 얽히면서 주민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기후변화와 병충해에 취약한 종자로 인해 생산성이 낮고, 작물 수확 후 관리 부족도 콜롬비아 농가의 고민이다.

여성 조합을 발굴하라

코이카는 2021년부터 콜롬비아의 분쟁 피해 지역인 12개 군에서 농가 소득 증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년간 680만 달러(약 91억 원)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 농부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코이카는 시장성 있는 상품을 만드는 여성 협동조합 26곳을 선정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 조합원을 대상으로 회계, 기술, 디지털 관련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여성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생산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마케팅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여성 농부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생산품을 대도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인증제도(INVIMA)'에 대한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지수(SDG Index Score)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성평등지수는 약 68점 수준이다. 이는 전 세계 149개국 중 92위로 낮은 편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평균 성평등지수인 84점에 한참 못 미친다.

공공 투자를 확대하라

콜롬비아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코이카는 젠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면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개발과 공공 투자를 함께 촉진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젠더 교육도 이뤄진다. 공공 부문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전략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코이카는 여성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 유엔(UN),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협력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돕는 정책과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성평등 기본권 확대를 위한 교육 공간도 마련한다. 이곳에서 여성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양성평등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성평등 캠페인도 기획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인구기금(UNFPA)도 참여한다. 이들은 분쟁 피해 지역에 만연한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여성들의 빈곤, 젠더폭력, 청소년기 임신·출산, 고용과 훈련 기회 박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Interview

잉그리드 헤르마니아 암푸디아 아소팔미라 조합장

"농부에서 사업가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잉그리드 헤르마니아 암푸디아 아소팔미라 조합장

콜롬비아 나리뇨주의 여성 협동조합 '아소팔미라'를 이끌고 있는 잉그리드 헤르마니아 암푸디아(Ingrid Germania Ampudia)는 올해 서른 살이다. 15년 전 열다섯 살 때부터 농부로 협동조합에 참여했다. 아소팔미라 조합은 코이카 소득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시설 지원과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잉그리드는 "매일 아침 농장에서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다"라며 "두 딸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Q 아소팔미라 조합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조합원은 총 45명입니다. 그중 90%가 여성 가장이거나 분쟁 지역 피해자입니다. 지난 20년간 카카오를 생산하고 가공해 온 조합입니다. 5년 전부터는 후추를 곁들인 카카오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Q 코이카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 질문에 답하려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이카와 유엔여성기구가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조합은 오랫동안 카카오를 생산하고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었지만, 품질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코이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품질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번 코이카 프로젝트는 다른 기구들의 프로젝트와 다르게 사업 과정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 이상의 젠더 접근 방식을 사용했어요. 덕분에 조합 여성들은 단지 농부가 아니라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Q 현재의 삶과 과거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단순히 농부가 아닌 여성 사업가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자아를 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Q 아소팔미라 조합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조합은 여러 전국적인 마케팅 행사에 참여하며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행사를 통해 중요한 잠재 고객을 만나고 우리 제품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조합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아소팔미라 조합은 전국적인 마케팅 행사에도 참여해 좋은 성과를 냈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조합이 행사 참여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지역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제품은 이미 국내는 물론 국제 카카오 품질 대회에서도 입상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부각해서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Q 조합원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코이카 지원을 통해 우리 여성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카카오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조합이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시간이 단축되고 작업이 쉬워져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목표는 작물 생산과 제품 제조 라인을 강화하고 제품 품질을 높여 조합의 여성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성과를 이뤄왔고, 이번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8회 KOICA 개발협력 평가포럼'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세계은행(World Bank),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수행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제8회 KOICA 개발협력 평가포럼

건강한 평가 문화, ODA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한다

지난 7월 24일 경기도 성남 코이카 본부에서 '제8회 KOICA 개발협력 평가포럼'이 열렸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평가포럼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평가 환류체계: 평가와 성과 사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평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협력 평가에 관련한 글로벌 동향과 코이카 사업 평가 환류 과제 등에 관한 주제를 선정해 토론과 학습, 지식 공유가 목적이다.

선진 공여기관의 환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다

코이카가 주최한 제8회 KOICA 개발협력 평가포럼은 한국보다 개발협력 역사가 긴 선진 공여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경험을 배우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파트너 기관에 사업 평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평가 결과 환류'는 민간 기업으로 치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품질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펼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세계은행(World Bank),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수행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조직 내 평가 문화 정착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장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코이카는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평가 정보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산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 더 나은 성과로 환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향후 평가 결과 환류에 대한 인식 증진과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서희권 세계은행 영향평가본부 박사가 KOICA 개발협력 평가포럼에서 세계은행의 평가 환류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CLA 공유한 USAID, GGGI는 내부 제도 '실시간 평가' 소개

이어 본격적인 각 기관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줄리 첸(Julie Chen) USAID 기획학습자원관리국장은 USAID의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환류 시스템인 '협력, 학습, 적응(Collaborating, Learning, and Adapting, 이하 CLA)'을 소개했다. 그는 USAID가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CLA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평가 환류 문화를 조직 내에 정착시켰다고 소개했다.

다음으로 서희권 세계은행 영향평가본부(WB DIME) 박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서 박사는 세계은행에서 시행하는 평가 유형을 소개하고, 평가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이행하는 방법을 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제임스 셰퍼드(James She-ppard)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선임전문관이 평가 결과를 사업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내부 제도인 '실시간 평가'에 대해 소개했다. 실시간 평가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기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로 도출된 시사점을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한승헌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제8회 KOICA 개발협력 평가포럼'에 참석한 주요 참석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한승헌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사업 중심의 통상적 환류와 확장적 범위의 환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밝고 진지한 표정으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책센터장(앞줄 왼쪽)과 한승헌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환류의 중요성과 국내 기관들의 평가 결과 환류 사례를 소개하고, 환류 문화 조성과 제도화를 위한 제언을 이어갔다. 특히 한 박사는 평가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 '평가'를 '결과 환류를 위한 기획 단계'로 보는 프로세스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의 마지막 세션은 발표자들과 함께 코이카 및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들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제도적 차원에서 평가 환류 시스템이 구축할 방향성과 평가 정보 수단 차원에서의 평가 결과 정보의 전달 방안, 환류 환영 문화의 확산 대상에 대한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한승헌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문제 제기한 사업의 성과 관리와 환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도 주고받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각 기관 전문가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의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경험도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의 사업평가 환류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임스 셰퍼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선임전문관

USAID와 공동 워크숍 개최… CLA 프레임워크로 조직문화 개선에 박차

다음날인 7월 25일에는 'CLA를 통한 평가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주제로 USAID와의 공동 워크숍이 마련됐다. 코이카와 USAID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CLA를 통한 평가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코이카 직원들은 CLA 프레임워크에 대해 학습하고, CLA Assessment 기반 기관의 평가 환류 현황을 점검해 평가 환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모의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이카 평가실은 이번 공동 워크숍을 계기로 평가 정보를 비롯해 조직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통합적인 환류 및 소통 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 자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내부 이해관계자의 평가 환류 실행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코이카 조직 전체에 환류해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나이지리아 시장 모습

박혜송 코이카 사업전략기획실 대리 기고

위기에도 굳건한 나이지리아 사람들



코이카 사업전략기획실 박혜송 대리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거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2억 명 이상의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다. 서아프리카의 중심 국가로서 인구와 자원이 풍부해 경제적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빈번한 납치와 테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나이지리아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 인터넷에 '나이지리아'를 검색하면 대부분 불안한 치안과 경제, 흉흉한 사건 사고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사무소 파견은 내 선택이었다. 코이카에 입사해 다자협력인도지원실에 근무하면서 인도적 지원 분야에 관심이 많아졌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으로 큰 피해를 당한 나이지리아의 안타까운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싶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라 나이지리아에 도착한 건 2022년 2월이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11월 말부터 다음 해 3월 중순까지를 '하마탄(Harmattan)'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는 건기로 사하라사막에서 모래를 동반한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아니나 다를까, 수도 아부자(Abuja)의 첫인상은 먼지로 가득 찬 도시였다. 우리나라의 황사나 미세먼지 수치가 나쁠 때처럼 가시거리가 짧고 숨 막히는 날들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친절한 나이지리아 사람들 덕분에 우울함을 떨치고 웃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임시로 미술관에 있는 호텔에 묵었다.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숙소가 아니어서인지 호텔 직원들이 한국인은 처음 본다고 신기해하며 나에게 나이지리아 문화나 주변 편의시설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줬다. 그 덕에 낯선 땅에서의 첫 2주일을 큰 불편 없이 지냈다.

나이지리아사무소는 불안한 치안으로 인턴 파견이 어려워 소장과 부소장만 근무하는 곳이었다. 내 직책은 부소장이었지만 두 명밖에 없다 보니 막내부터 차석의 역할까지 두루두루 도맡아야 했다. 나이지리아사무소는 주변에 시에라리온(Sierra Leone)과 라이베리아(Liberia)를 겸임국으로 두고 있어서 두 나라의 사업까지 발굴하고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중에서 내가 가장 열성을 쏟았던 일은 '나이지리아 공립 초·중학교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었다. 수도 아부자에는 코이카 사업을 통해 2019년에 설립된 '한국-나이지리아 초·중등 시범학교'가 있다. 시범학교 학생들은 수학 경시대회 및 과학 창의경진대회 등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입학경쟁률도 매우 높아 나이지리아 최고의 공립학교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나이지리아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나이지리아 연방보편교육청(UBEC)은 한-나 초·중등 시범학교를 모델로 하여 나이지리아 6개 주요 권역에 총 37개에 이르는 시범학교를 건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코이카는 37개 시범학교 가운데 6개 학교를 최종 선정하고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교육 제도화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교육 경진대회 개최 등 나이지리아 내 스마트 교육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교사들은 잠을 줄여가며 새벽까지 정성껏 수업 준비를 했고, 학생들은 시범학교에 오고 싶어서 오랫동안 부모님을 설득한 만큼 열성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다. 담당자로서 교사와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컸다.

교사와 학생뿐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어려운 국가 상황 속에서도 모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현지에서 근무하는 2년 동안 물가 상승, 유류비 상승, 환율 폭등, 현지화 부족 사태 등 나이지리아 경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휘발유는 2년 사이에 약 4배, 환율은 2배 넘게 올랐다. 무엇보다 2022년 말 나이지리아 정부가 화폐를 신권으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선언한 후, 구권 사용을 금지하고 신권 인출 액수를 제한하면서 현금이 크게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적은 액수의 현금을 인출하는데도 ATM 기기 앞에서 열 시간 넘게 기다리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매일 성실히 살아갔다. 어두운 시절을 꿋꿋이 견디며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의지와 용기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코이카 사업 덕분에 나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었다.

2년간의 나이지리아 생활을 마치고 약 6개월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카페가 거의 없어 시원한 아메리카노도 마시지 못하고, 우리나라처럼 배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끼니 해결하기도 여의치 않았지만 나이지리아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고난에 지지 않고 삶을 살기로 다짐했고, 현지에서 사업을 직접 관리하면서 업무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머나먼 나라, 나이지리아가 여전히 내 가슴 속에서 선명히 빛나고 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이지리아 사람들

한눈에 보는 코이카 최신 이슈

KOICA NEWS 모아보기

7월 July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국제개발 협업' MOU 연장

코이카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아름다운 동행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지난 7월 3일 코이카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분야 간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공공외교 사업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MOU는 2022년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 기한이 5월 만료됨에 따른 갱신 체결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개발도상국 대상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과 전문가 및 월드프렌즈코리아(WFK) 해외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추진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을 위해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를 하며, 국내외 개발협력 조직망과 관련 정보도 공유한다. 이밖에 개발도상국이 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 교류 및 인적·문화 교류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3년 연속 A등급

자회사 운영 능력이 올해도 합격점을 받았다. 코이카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올해로 무려 3년 연속이다.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실시한다. 자회사의 안정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등 총 4개 영역에서 진행되며 올해는 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2019년 2월 주식회사 '코웍스(KOWORKS)'를 출범한 코이카는 매년 자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 코이카는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결과 기반 합리적 인사체계·임금체계 마련 ▲자본금 3억 원 무상증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전문적 자회사 운영,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영역에서 최상위 점수(A+등급)를 받았다.



코이카와 함께 조선 강국 도약 꿈꾸는 콜롬비아

코이카가 콜롬비아의 선진 해양 산업 국가 도약에 힘을 보탠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접하는 등 지정학적으로 조선해양 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다. 하지만 관련 정책 및 기술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조선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코이카는 콜롬비아가 조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00만 달러 규모로 '콜롬비아 조선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코이카는 지난 7월 18일 콜롬비아 북부 항구도시 카르타헤나에 있는 국립직업훈련원(SENA)에서 조선 제조 훈련 실습 기자재 기증식을 개최했다. 기증된 기자재는 용접·기계·도정에 필요한 필수 장비 18종(약 230대)이다. 이 장비들은 조선소가 밀집한 카르타헤나 지역 내 국립직업훈련원에 설치돼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 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코이카는 실습 기자재 지원 외에도 ▲조선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조선 분야 관리·기술 인력 대상 국내 초청연수 ▲조선소 및 관련 기자재 기업 대상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운동 동참

코이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7월 23일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으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글로벌 인재 육성 ▲ESG 경영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코이카는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1월에는 대국민 캠페인과 임직원 참여를 통해 수거한 25톤 규모의 폐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순환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소나무 637그루에 해당하는 온실가스(89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를 감축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21년부터 먹거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추진해 오고 있는 캠페인

** **E-순환거버넌스 :** 환경부 인가 국내 유일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공제조합인 비영리 공익법인



‘해외 진출 꿈꾸는 기업 주목’ CTS·IBS 신규 사업 공모

코이카가 대표 기업협력 프로그램인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의 2024~2025년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

CTS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ODA(공적개발원조)에 적용해 개발도상국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CTS 공모는 Seed1(ODA 테스트베드), Seed2(기술사업화), CTS-TIPS 연계형(현지실증 및 기술사업화)까지 총 세 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Seed1, Seed2 참가 기업에는 각각 3억 원, 5억 원이 지원된다.

IBS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공유가치창출(CSV) 재원 등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ODA와 연계해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IBS 공모는 ▲IBS 사업(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혼합금융 사업(중소기업·투자사) ▲코이카 IBS-ESG 이니셔티브(대기업·중견기업·투자사)로 구분해 다년도(2~5년) 사업으로 진행한다. 참가 자격은 영리법인 및 해당 법인이 설립한 비영리재단이며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혼합금융사업은 연간 최대 7억 원까지, IBS-ESG 이니셔티브는 연간 최대 10억 원까지 코이카가 사업비를 분담한다.

8월 August



아프리카 식량위기 대응 ‘원 팀 코리아’ 꾸린다

코이카는 지난 8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해 5개 NGO(굿네이버스, 희망친구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RAPID(Responsive Actions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해외재난 대응협력 이니셔티브)’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코이카는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민관 협력 사업의 일부를 ‘RAPID(라피드)’란 브랜드로 추진한다. 코이카와 신한은행, NGO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공동 재원을 마련해 해외 재난 구호, 식량위기 등의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사업이다. 올해 첫 RAPID 시범 사업으로는 아프리카 급성 식량위기에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로서 공동 대응한다. 대상 국가는 앙골라, 잠비아,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부르키나파소로 5개 NGO가 각 국가에서 공동 주제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몽골 ODA 사업 현장 방문

이윤영 코이카 지역사업본부 이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공식 방문했다. 이 이사는 8월 21일 코이카 몽골사무소를 시찰한 데 이어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한 대한전기학회 국제학술대회(ICEF)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 및 글로벌 캡스톤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시상했다. 이 외에도 몽골 칭기즈칸 박물관을 방문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몽골 날라흐구 폐광산 지역의 환경 복원 사업지도 시찰했다. 또한 최진원 주몽골 대사를 만나 몽골에 대한 ODA 추진 현황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국과 몽골은 2021년 9월 한-몽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국제개발 ‘청렴·윤리경영 선언문’ 선포

코이카는 지난 8월 26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과 해외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윤리경영 선언문’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영진은 반부패와 내부 통제 체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코이카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8월 마지막 주(8월 26~30일)를 청렴 주간으로 지정하고 청렴·반부패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코이카는 ‘부패·비위행위 발생 ZERO’를 목표로 청렴 문화 확산 외에도 실효적인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 윤리 위험 사전예방 등을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제개발협력 대표기관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9월 September



코이카-행안부-경북도, ‘새마을운동’ 기적 살린다

코이카가 지난 8월 29일 개발도상국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와 ‘새마을 개발사업 이행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상호 협력하에 현재 개도국 농촌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내용과 실천 방식을 현대화한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농촌개발 사업은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공급자 중심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새마을 개발사업은 농민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간 신뢰를 통한 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새마을 교육 전문 강사 및 새마을 행정 공무원 300명이 양성된다. 현지 연수를 통해 마을지도자 2만여 명도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해외 인도적 지원 위한 MOU 체결

코이카가 대한적십자사와 긴급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도적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코이카는 지난 8월 30일 대한적십자사와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긴급재난 발생 시 코이카와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글로벌 조직망과 정보를 공유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대한적십자사는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 차원에서 협력하고, NGO, 기업 등 국내 다양한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기관들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갈 예정이다. 특히 코이카는 대한적십자사와의 협력으로 해외재난 대응협력 이니셔티브인 ‘RAPID(라피드)’ 사업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다양한 인도적 지원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아 3개국과 ‘K-실크로드’ 그린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이 지난 9월 5~12일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들과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장 이사장은 9월 5일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과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하고, 6일에는 타지키스탄을 방문해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과 ODA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회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협의 의사록(RD)에 서명하고 한국형 모델 유치원과 유아 체험관 착공식에 참석했다. 또 압둘라 니그마토비치 아리포프 총리와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 역량 강화와 스마트팜,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협력 분야도 논의했다. 이번 순방은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파키스탄 영양 교육, 우리가 맡는다

코이카가 지난 9월 19일 파키스탄 펀잡주 파이잘라바드 농업대학에서 영양교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영양교육센터는 3층 규모로 기숙사, 컨퍼런스룸, 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파키스탄 전역의 영양 교육과 식품 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자 인재 양성 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 연수받은 마스터 트레이너(영양교사 양성 강사)들은 이곳에서 파키스탄 전국 5개 주 거점 대학과 협력해 학교 담당자, 보건인력, 임상영양사 등 약 1만 2,000명에게 영양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교육받은 인력들은 다시 각 마을 단위 내 학생, 학부모 등 주민 12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파한다.



5년간의 땀과 눈물, 라오스 홍수 피해 지원 사업 종료

우리 정부의 5년간 노력이 빛났다. 2018년 7월 댐 붕괴 사고로 홍수 피해를 당한 라오스 앗따쁘주의 재건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펼친 우리 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 코이카는 지난 9월 19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앗따쁘주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종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코이카는 사고 이후 피해 복구를 넘어 주민들이 자립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더 나은 미래를 일궈나갈 수 있도록 ▲보건 ▲아동보호 ▲재난관리 ▲농업개발 ▲직업훈련 분야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김명진 코이카 라오스사무소장은 “이번 사업은 5개 분야에 걸쳐 통합 지원해 피해 복구를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리파오양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차관도 앗따쁘주 조기 재건 및 주민 여건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고마움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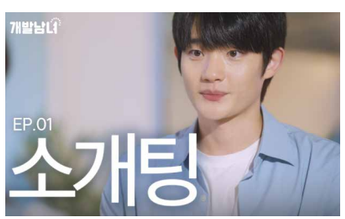
10월 October



피코(PeKO) 캐릭터 꾸미기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코이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캐릭터 '피코(PeKO)'를 주제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이카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 '내꼬! 피코! 밈 콘테스트'의 수상작을 공개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말풍선 속 대사를 채우는 'PeKO 한마디', 재치 넘치는 '짤(사진이나 그림, 짧은 영상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을 만드는 'PeKO 재짤재짤', 피코의 친구를 만들어 주는 'PeKO 프렌즈'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했다.

'PeKO 재짤재짤' 부문 최우수작은 "피코 좋아하는 사람 접어, 그날 지구가 반으로 접혔다"는 인터넷 유행어를 활용한 유희원 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PeKO 프렌즈' 부문 최우수작은 코이카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5P 중 피코가 상징하는 평화(Peace) 외에 사람(People), 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파트너십(Partnership)의 가치를 담은 캐릭터 4종을 제작한 김재효 씨의 작품이 뽑혔다. 이 밖에도 'PeKO 한마디' 부문으로 출품된 공감 메시지와 피코 2행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말풍선에 담은 작품들도 네티즌의 주목을 받았다.



코이카 제작 웹드라마 '개발남녀' 화제

코이카가 제작해 지난 10월 11일 공개한 웹드라마 '개발남녀'가 화제다. '개발남녀'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일컫는 '국제개발협력'의 '개발'과 IT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의 '개발'을 혼동해 벌어진 소개팅 해프닝을 유쾌하게 그린 두 편짜리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공개된 두 편의 에피소드는 약 일주일 만에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조회수 175만 회, 노출 수 288만 회를 돌파해 화제를 모았다.

'개발남녀'는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대신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소개팅'이라는 소재를 통해 일반인의 흥미와 관심을 얻고 이를 자연스러운 기관 홍보로까지 연결해 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첫 번째 에피소드의 엔딩 장면에서 "혹시 코이카라고 아세요?"라는 대사로 기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음 에피소드의 에필로그에서 코이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관 사업에 대한 소개까지 연결했다. '개발남녀'는 코이카 유튜브 채널 '렛츠코(Let's K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코이카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중구의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4년 코이카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통합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은 청년들이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사다리를 제공하는 코이카의 대표적 국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이번 설명회는 일명 '코이카 글-인 언박싱: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콘셉트로 해외봉사단, 유엔자원봉사단(UNV) 대학생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KMCO), 코이카 해외사무소 청년인턴·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선배들의 참여 경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사전행사로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프로그램별 정보 전시, 코이카 직원과의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나에게 맞는 파견 국가를 찾아보는 게임 부스, 월드프렌즈코리아(WFK) 봉사단 활동사진 공모전 수상작 사진전도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흥미를 더했다.



외국 개발협력기관과 'FASA 펀드' 참여 MOU 체결

코이카는 지난 10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 자리한 노르웨이대사관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및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과 'FASA 펀드' 참여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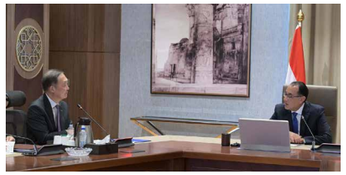
FASA 펀드는 2023년 9월 유엔 총회에서 USAID 청장과 NORAD 장관이 공동 발표한 프로젝트로, 두 기관이 각 3,500만 달러씩 총 7,000만 달러를 투자해 조성·운영한다. 코이카는 이번 MOU를 계기로 향후 5년간 125만 달러 이상을 투입, 아프리카 중소·중견 농업 기업에 저금리 금융 지원을 위한 FASA 펀드의 추가 재원 형성에 힘을 보탠다. 코이카는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공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혼합금융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 FASA 펀드 등 주요 펀드에서의 의사결정권을 보유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4 하반기 아프리카 지역 해외사무소 회의' 개최

코이카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본부 담당자와 15개 아프리카 지역 해외사무소 부소장들이 모인 가운데 '2024 하반기 아프리카 지역 해외사무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수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 간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회의에서는 교육, 보건, 농업 등 아프리카 3대 중점 분야에서 우수 및 문제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며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또한 그룹별 토의, 분쟁 취약국 사업 추진 현황,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조치,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등도 진행됐다. 코이카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실무자 의견 공유의 과정을 거쳐 2025년 아프리카 사업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11월 November



수교 30주년 앞둔 이집트와 개발협력 강화 모색

한국과 이집트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원삼 이사장은 11월 20~22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2021년 이집트를 신규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한 뒤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11월 20일, 무스타파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와 면담한 뒤 '한-이집트 기술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교환각서 서명식에 참석해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1일에는 '코이카 이집트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코이카는 이집트 정부에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을 전수하고 공무원 역량 개발을 돕는 사업을 펼친 바 있다.



코이카-유엔기후변화협약 MOU 체결

코이카는 지난 11월 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기후 미래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용하는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 협력 사업'과 '분쟁 및 취약국의 기후재원 수요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인공지능 협력 사업을 통해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지원과, 솔루션 활용 역량 강화, 지식 생산·확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첫 시작으로 12월 초 국내 기업과 유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이카 기후AI 포럼'을 개최했다.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2개 부문 수상

코이카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인쇄사보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ESG 부문 최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매거진 코이카'는 2022년 창간사보 부문 최우수상, 지난해 전자사보(웹진)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3년 연속 수상해 국내 유일의 국제개발협력 전문지로서의 가치와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코이카 아프리카 지역 우수사업 홍보영상'은 ESG 부문 최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에서 현지 촬영한 이 영상은 기초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분야 등 급속히 발전하는 젊고 역동적인 아프리카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성수동서 '인도적 인류' 사진전 개최

코이카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서울 성수동에서 '인도적 인류(Humanitarian Human)'를 주제로 분쟁 및 취약국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특별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코이카와 함께 전 세계 분쟁 및 취약국을 지원하는 18개 파트너 기관(국제기구 8개, 국내 NGO 10개)이 참여해 33개국의 현장을 담은 사진을 선보였다.

관람객은 사진에 담긴 분쟁 및 취약국 현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코이카와 파트너 기관들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의 비전과 목표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다. 전시 기간 관람객에게 르완다 공정무역 커피와 친환경 리사이클링 텀블러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품질관리 개선 성과 소개 콘퍼런스 개최

코이카가 지난 11월 15일 르완다 키갈리 컨벤션 센터에서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품질관리 역량 강화 사업' 종료를 기념해 사업 성과를 소개하는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연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코이카는 이 사업을 통해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개발, 교육평가 및 품질관리, 교사자격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교육과정 34종, 자격인증 보유 교사 약 4,400명, 직업기술교육훈련 학교 345개, 직업기술교육훈련 국가자격증 취득 학생 약 3만 명 등이 창출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2024년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학교 졸업생 중 60% 이상이 졸업 후 3개월 이내 취업이나 상위학교 진학에 성공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12월 December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

코이카가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코이카는 평가 항목 3개 영역 모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총점 98점을 기록해 중앙행정·공공기관 등 최우수 품질인증을 획득한 28개 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코이카는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구성, 데이터 관리시스템 도입 및 구축을 통한 기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정비,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데이터 품질 부문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코이카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코트디부아르 개소 10주년 기념 성과공유회 개최

코이카는 지난 11월 28일(현지 시각)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의 한-코 체육·문화·ICT 협력센터에서 사무소 개소 10주년을 기념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코이카는 2014년 코트디부아르에 사무소를 개소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년간 코이카를 통한 무상 ODA 지원액은 6배 이상 증가(2014년 237만 달러→2024년 잠정 1,344만 달러)했으며, 코이카 연수 사업에 참여한 인재들은 누적 401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의 국내총생산(GDP)은 2배 가까이 증가(2014년 480억 달러→2024년 850억 달러)했다. 코이카는 주로 보건, 물 관리, 교육 분야에서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을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한편 코이카는 성과공유회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부처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코이카 사업 추진과 발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 그린 임팩트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활용성과 공유회' 개최

코이카는 지난 11월 27일(현지 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그린 임팩트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활용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국제 채권을 발행한 성공 경험을 공유했다.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은 개간 정책, 댐과 운하 건설, 대규모 목화 경작 등으로 지난 50년 동안 90% 이상의 아랄해가 사라져 어민들은 대체 생계수단을 찾아 떠났고, 지역경제 또한 큰 위기에 처했다. 이에 코이카는 GGGI와 협력해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의 지역사회 주도 친환경 재건을 통한 아랄해 위기대응 사업'을 추진했다. GGGI는 우즈베키스탄의 상업은행인 SQB와 Agrobank를 대상으로 채권 발행을 위한 기반 구축과 채권 발행 전 과정을 지원했고, 그 결과 SQB와 Agrobank에서 발행한 채권이 모두 성공적으로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이런 성과는 전통적인 ODA 방식의 정책 지원과 역량 개발 활동이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로 이어진 혁신적 성과로 평가된다.



제19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 개최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관한 제19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5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은 우간다에서 17년 이상 선교단체를 운영하며 환아와 빈곤층 아동을 돌보는 등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황경순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수녀가 받았다. 황 수녀는 이태석상도 함께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정호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가 받았다. 이외 외교부 장관 표창은 ▲정문수 밀알복지재단 말라위 지부장과 ▲박동철 굿네이버스 베트남 지부장, 코이카 이사장 표창은 ▲김세현 메디피스 페루 지부장과 ▲석동연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장 표창은 ▲박광호 네팔 티까풀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와 ▲이규인 한국의학연구소 의학박사가 받았다.



'코이카 2024 기후 AI 포럼' 개최

코이카는 지난 12월 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코이카 2024 기후 AI 포럼'을 개최했다. 코이카는 유엔기후협약(UNFCCC) 사무국과 2027년까지 협력을 약속한 AI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이니셔티브인 '#AI4ClimateAction'을 소개하고, 한국이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국내 기업인,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1은 '글로벌 기후행동과 AI 기술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미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혜원 코이카 기업협력팀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세션2에서는 '글로벌 기후 AI 사업 참여 방안 및 사례'를 주제로 최예지 에스아이에이(SIA) 인공지능연구소박사, 김태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에서 실제 개발하고 연구 중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기술 사례를 소개했다. 코이카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UNFCCC #AI4ClimateAction 이니셔티브의 공식 파트너 기관 자격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와 지식 공유 활동을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함께 그리는 지속 가능한 내일

안녕하십니까! 이번 MAGAZINE KOICA를 통해 다가올 시대의 주역인 미래 세대의 역할과 비전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코이카와 외교부가 공동 개최한 제17회 서울 ODA국제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각계의 다양한 개발협력 구성원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래 세대가 직면한 글로벌 과제와 그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는 뛰어난 역량과 잠재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과 이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및 공급망 위기 등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복합위기가 날로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각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개인 등 국제사회의 여러 주체 간 '공존'과 '상호 협력'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이카는 미래 세대가 갖는 시대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 대한 존중을 넓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소개된 키르기스스탄과 에티오피아의 취·창업 지원 사업과 직업기술대학 운영 사업, 온두라스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아프리카 섬나라 코모로의 여성 및 아동 보호 사업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그간 코이카가 펼쳐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는 미래 세대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도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력사다리' 프로그램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개발협력 현장을 경험한 미래 세대는 코이카 코디네이터, 국제기구 파견 다자협력 전문가 등 징검다리 일자리를 거쳐 국제기구·민간·공공기관 등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3년 연속 매해 100명 이상의 개발협력 인재가 국제기구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니세프에 진출한 양다영 청년전문가와, 코이카 봉사단원에서 튀니지 최초의 한국인 셰프로 변신한 나현정 대표의 사례를 코이카가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모범적인 예시로 소개했습니다.

코이카는 더 많은 미래 세대가 개발협력 사업의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청년 이니셔티브'를 시행하여 2027년까지 3만여 명의 개발협력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귀국 봉사단원의 창업을 돕는 '리턴프로그램'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학업을 돕는 '장학 프로그램', 해외 봉사 활동에 대한 대학 학점 인정 제도 등을 통해서도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부의 양극화, 기후변화 등 우리 시대의 도전적 현실을 생각하면 미래 세대에 무거운 책임을 넘기는 듯해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열쇠는 바로 미래 세대의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는 미래 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코이카는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 희망찬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 드림

고익하를 찾습니다

KOICA



코이카는 더 나은 내일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코이카는 선진국형 ODA 사업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무상 개발협력 대표기관입니다.

KOICA

등록일자 2024년 12월 31일 | **발간등록번호** 홍보 2024-04-402 |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1588-0434 | **팩스** 031-740-0260 |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 **제작** (주)조선뉴스프레스 | **인쇄** 타라티피에스

MAGAZINE KOICA 2024 VOL.6

Download MAGAZINE KOICA

홍보자료
홍보 2024-04-402

GENERATIONS FUTURE













Peace





GOLBAL

